생존자프로젝트 ×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공동창작 실패 다큐멘터리:

생존자프로젝트는 생존할 수 있을까?

접근성 제작 과정 기록

CONTENTS

접근성의 시작 '대화의 확장' 04
확장의 메소드 '말 걸기' 06

1. 수어통역 - 두 겹의 통역

수어 번역 과정 16
수어 영상 촬영과 편집 18
접근성 안내를 위한 사전 콘텐츠 제작 21
수어 통역사의 동선 23
수어 통역사의 역할 27

2. 자막해설

자막 레이아웃 30
소리 정보 '지금, 여기, 필요한 감각' 31
발화하는 대사 '소리 나는 대로 적어도 되나요?' 32
픽토그램의 다양한 활용 33
음성언어를 대신한 독립적 자막해설 34
'우리는 제1 언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35

3. 열린 객석

감각과 수용범위에 관한 고찰 '극장은 안전하다' 37
도움가방 38
불안장애를 위한 열린 객석 40
접근성을 포함한 개축 객석 계획 41
출입구 개방과 하우스 운영 44

4. 음성소개

음성소개 제작 48
음성소개와 비상대피 안내방송 대본 49
위스퍼링 음성해설 55

5. 모니터링과 피드백

2024. 4. 25 접근성 모니터링 리허설 58
2024. 4. 26 ~ 4. 30 관객 설문조사 63
2024. 5. 9 창작진 자체 품평회 65
2024. 5. 20 접근성 워크숍 월간사례. ZIP(집) 68

기록을 마치며 '함께하는 방법' 71
만든 사람들 72

접근성의 시작
‘대화의 확장’

접근성의 시작 '대화의 확장'

연극 <공동창작 실패 다큐멘터리: 생존자프로젝트는 생존할 수 있을까>(이하 생.생.까)는 극단 생존자프로젝트가 2023년 한 해 동안 경험한 공동창작 실패 과정을 기록하고, 개인과 공동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년 예술가의 목소리를 담았다. 위계 관계 속에서 솔직할 수 없었던 청년들의 생각을 개척교회 청년부 이야기에 빗대어 담아, 소통 방식을 고민한 작품이다.

2023년 12월, 본 공연은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정기대관 공연으로 확정된 이후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이하 예술극장)에서 제공한 접근성 제작 수요조사를 통해 접근성 협력을 신청했다. 이후 예술극장으로부터 공동기획과 더불어 접근성 공연제작을 제안받아 기획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접근성 인식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축적해 온 예술극장의 노하우와 기획력을 발판 삼아, 접근성 공연제작을 경험하고 극장의 경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개선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예술극장의 접근성 제안이 감사한 기회가 되었던 것은 연극 <생.생.까> 이야기를 관객과 나누기에 앞서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고민 깊었기 때문이다. 청년 예술가가 집단에서 느끼는 위계, MZ세대가 지금 사회에서 겪는 소통의 갈등,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불통의 경계를 허무는 양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접근성 제작 기회를 통해 대화 상대 - 관객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접근성 제작이 작품 주제를 연장하는 데 함께 존재해 주길 바랐다. 청각장애 예술인과 청년 예술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그에 따라 자막해설과 수어통역을 준비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말하기 방식도 중요했다. 도움가방을 포함한 열린 객석을 기획하고 휠체어석,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스퍼링 해설[1]과 안내보행, 문자예매, 안내견 동반 입장이

1) **위스퍼링(whispering) 해설** 수행 통역 중 하나다. 통역이 필요한 사람을 동반하면서 통역하는 것으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위스퍼링(whispering) 통역은 속삭이듯 귓속말로 통역하는 것이다.

가능하도록 사전예약 시스템을 준비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주제 대화의 확장을 도모하고, 연극이 기능하는 '소통'에 대해 기술적인 고민을 더하게 되었다. 접근성을 포함한 시스템 경험이 없고 기획력이 부족했지만, 예술극장의 조력 하에 접근성 제작을 추진할 수 있었던 과정을 양식별로 정리하고 노트하고자 한다. 아직 접근성이 익숙하지 않은 민간 단체에 관객 확장이 대화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하고, 각 단체에 맞는 예산과 구조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시작한다.

확장의 메소드 ‘말 걸기’

접근성 자문 회의록

(김슬기 드라마터그)

확장의 메소드 - ‘말 걸기’

기획 회의에 앞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두서없이 리서치하던 중, 이유진 예술극장 접근성 피디가 자문 회의를 제안했다. <인정투쟁; 예술가 편>을 만든 이연주 연출가에게 연극 <생.생.까> 접근성 가안을 보내고 자문을 구했다. 이연주 연출가는 그동안 공연에서 접근성을 함께 고민한 김슬기 공연예술 연구자이자 드라마터그를 추천해 주었고, 대학로예술극장 리딩룸에서 만났다. 회의에서 처음 제안하고 확인했던 대화를 보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심화했는지, 무엇을 포기하고 놓쳤는지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자문 회의에서 나누었던 몇 가지 질문이 제작 과정에서 중요한 길라잡이가 되어 주었다.

2024년 3월 17일 접근성 자문 회의록

참여자 (가나다 순)
드라마터그 **김슬기** | 조연출/배우 **김태현** | 연출 **본주** | 배우 **이민주**
접근성 PD **이유진**

본주 제작 기간이 얼마 없다. 주변에 접근성을 제작하거나 고민하는 분이 많지 않기도 하고,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 경험 공유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 다른 연출님이 고민하시는 지점도 궁금하다.

슬기 접근성 관련 공연을 많이 봤나?

본주 글로 배운 것에 더 가깝다. 대관 신청 시 제출했던 내용 중 자유로운 객석 퇴장을 위한 대피존 기획안을 보고 접근성 피디가 릴랙스드 퍼포먼스[2]를 추천했다. 코로나 때, 폐소공포증, 공황장애로 극장 이용을 어려워하는 관객을 경험한 바 있다. 호흡곤란, 발작 증세가 발현돼서 공연 관람을 포기하는 관객들이 있었다. 암전이나 이동이 허용 안 되는 점이 증상을 더 자극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열린 공간을 생각했고, 이동에 대한 제약만 없어도 관객들이 관람을 잘 하시더라. 이때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번에 구체화해 보고 싶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예술 활동을 하는 농인 관객들을 만나고 싶다. '여기에 맞는 접근성을 만들어 보자'라고 정하긴 했다. 하지만 농인 예술인과 작업한 경험이 없다 보니 청인의 시각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다.

슬기 이 공연에서 큰 접근성 맥락은 청각장애, 농인 예술인 관객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릴랙스드 퍼포먼스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 이 두 가지인 것 같다. 이 작품에 다른 장애 당사자가 들어오나?

본주 외부 예술인을 모집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미디어 영상으로 송출한다. 농인 배우를 포함한 장애인 배우를 섭외할 계획이다.

슬기 릴랙스드 퍼포먼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관람 중 나가는 것은 모든 공연이 가능하다. 이 공연은 다시 들어오는 것을 포함하는 거다. 릴랙스드 퍼포먼스는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괜찮다. 어떠한 소음을 내도 가능하다. 강한 빛이나 소리 등에 어떤 감각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배제되지 않을 환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섬세하게 가야 한다. 소음이 막 나도 괜찮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영상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배우의 동선이 확보 가능한지? 영상을 볼 때 얼마나 깜깜한지? 조명이나 사운드가 얼마큼 자극이 가는지? 등도 생각해야 한다. 릴랙스드 퍼포먼스 공연이 많지 않다. 공연 미학으로 조명, 사운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안내 멘트로 이 공연에서 가장 밝은 빛, 가장 강력한 소리를 예시로 경험시켜 주거나 하는 것도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서다. 이런 사람들을 신경 다양인으로 부르는데 자기

2) **릴랙스드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 자폐나 발달 장애인, 노약자나 어린이 등 감각 자극에 민감하거나 경직된 여건에서 공연 관람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극장 환경을 조절한 공연을 의미한다.

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예측이 불가하다. 실제로 소리를 지른다거나 먹거나 옆 사람을 만지거나,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다양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염두해야 한다. 물론 이분들이 공연을 보러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라도 온다는 걸 전제해야 하니까. 공연장에 있는 모든 관객과의 약속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극장에서 지켜야 할 암묵적인 동의, 합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본주 예상하지 못한 관객 반응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뛰거나, 출연진이 이 반응과 함께 가는 것이 맞을까?

슬기 어떤 공연인지 몰라서 확답은 아니지만 그게 맞는 것 같다. 객석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을 때, 배우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본주 우리가 극장 관람 매너라고 해오던 것들,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벨소리가 울린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제지를 다 배제해야 하나?

슬기 맞다. 릴랙스드 퍼포먼스가 포함되면 내 생각에서는 막으면 안 된다. 무슨 상황이더라도 막으면 안 된다는 전제다. 대부분 자폐 스펙트럼, 신경 다양인 분들은 활동 지원가랑 함께 오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동행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다. 하우스 측에서 터치하는 걸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의 생각이다. 물론 어려울 거다. 내가 참여했던 공연은 배우가 발달 장애인이었고 관객도 같은 장애였다. 쉬고 싶거나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다.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

본주 역차별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종종 경험했다. 배리어프리 공연에 관해 물어보면 접근성 회차를 피해서 보거나 자막이나 수어통역이 방해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근데 우리는 전회차를 접근성 공연으로 가다 보니 접근성을 원치 않는 관객도 신경 쓰인다.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수어통역이나 자막해설이 빠졌을 때 공연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접근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언어를 이렇게 바꿔보니 마음이 편했다. 최대한 극 안에 포함해서 자막과 수어통역이 없다면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는... 이것도 제공자 입장의 생각이다.

슬기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접근성 공연을 만드는 창작자 입장에서는 역차별에 대해 생각한다. 하지만 비장애 중심적인 방식으로 차별해 왔던 기간이 길다. 누군가는 수어와 자막이 불편해서 공연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익숙해지려고 하면 된다. 함께 익숙해지자는 '말 걸기'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없는 관객'으로 취급하고, 이 사람들이 마치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한다면, 장애인이 연극을 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접근성을 실천하면 사회 이슈에 잘 발맞춰 가면서 해야 할 역할을 한 것만 같을 수 있다. 하지만 태도로서 접근성을 생각해야 한다. '접근성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이 쌓이지 않을 수 없다. 왜 내가 이걸 하는가? 생각해야 한다. 전 회차 접근성 실천을 해서 이 공연을 안 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누군가는 접근성이 없어서 공연을 못 보기도 할 텐데. '접근성 실천을 공연 미학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나 또한 접근성 공연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있다. 음성해설을 공연 미학으로 가져오는 것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문자랑 수어가 진짜 어렵다. 굉장히 다른 층의 고민이 필요한 작업이다. 수어 같은 경우 한국어와 한국 수어가 둘 다 제1 공통 언어다. 공용어인 거다. 근데 한국어와 한국 수어가 되게 다르다. 문법상으로 다른 언어다. 배우의 대사를 통역사가 번역할 때 구어로 익숙한 말들이 수어로 번역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독특한 말하기, 농담, 사투리 등. 수어로 번역되지 않는 것들은 대사에서 뺄 것인가? 구어를 지키고 수어를 최대한 살릴 것인가? 회의를 잘 거쳐서 농인, 청인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제3의 언어를 찾을 것인가?

본주 우려하고 있는 점이 생각났다. 이 작품은 청년들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다. MZ세대와 기성세대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신조어, 줄임말은 수어로 변환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슬기 수어에도 신조어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들었다. 대중 매체에서 많이 노출되니까. 그것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고 한다. 청인의 문화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긴 한다. 수어 통역사분과 긴밀히 상의해야 할 것 같다.

본주 언어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공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가?

슬기 맞다. 농인 관객 중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확률도 있다. 얼마나 보편적인가? 이 질문을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주 수어로 보편화되지 않은 신조어가 있다면 놀이처럼 공연 시작 전에 단어를 제시해 주고 단어의 쓰임을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슬기 맞다. 그러는 공연 팀이 실제로 있다. 공연에 잘 이용하면 좋겠다. 이 공연에서 얼마나 많은 사운드가 사용되나? 사운드를 수어나 문자로 통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통은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혹은 접근성 매니저나 창작 팀에서 어떤 식으로 통역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시하기도 한다. 제목, 분위기, 악기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부 관객에게는 불필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사운드 통역 또한 시각적인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맞춰서 어떻게 넣을 것인지 고려할 중요한 사항이다.

본주 다큐멘터리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사운드를 아예 쓰지 말아보자'가 첫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소 커튼콜 음악이라도 쓰게 된다면 악기 소리의 음악이 흘러나올 것 같다. 근데 듣는 감각을 텍스트로 구현하는 게 개인적으로 썩 와 닿지 않았다.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드럼 악기가 내는 우퍼 효과를 생각했다. 멜로디보다 박자를 시각화하면 어떨까?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인도 새로운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슬기 모니터링이나 자문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분들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신다. 모두가 다르게 감각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 공연에서 가장 전달되어야 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해야 한다.

본주 그런 지점들을 고민하고 뚝심 있게 가지고 가야 할 필요도 있겠다.

슬기 개축 객석에 휠체어를 놓는 거에 고민이 있나?

본주 무대 디자이너와 단차 얘기를 했었다. 1열 전체를 휠체어석으로 하면 어떨지 생각했다.

슬기 휠체어 이용자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자리 선택 권한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다. '나는 뒤에서 보고 싶은데 앞에서 봐야 한다.'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없다.' 등등. 이런 경우에 휠체어석 바로 옆에 일반 객석을 둘 수도 있다.

본주 무대 디자이너와 무대감독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무대가 경사로다. 객석 단차가 없어도 시야가 다 열린다면 단차를 없애고 싶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객석에 단차가 없다고 하면 휠체어석 배치가 해결될 것 같다.

슬기 맞다.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다.

본주 휠체어석도 지정석으로 자리를 선택해 예매할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휠체어 사용자도 선택지를 드리는 거다. 어느 정도 구역은 생기겠지만 이 안에서라도 선택하실 수 있게끔.

유진 전동 휠체어는 높이가 꽤 높다. 낮은 휠체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걸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슬기 성인 남성을 위해 만든 의자보다 높다. 그 뒤에 앉으면 시야가 가려질 거다.

유진 비지정석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휠체어석 구역은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술극장은 비상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간이객석은 바닥에 고정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비상대피 시 의자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슬기 단차가 없다고 했을 때 구역을 만들어서 휠체어석을 객석 곳곳에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유진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거나 온라인에서 열어 두면 될 것 같다.

본주 무대디자이너와 함께 틀을 짜보겠다. 이왕이면 동행인과 나란히 앉으시는 걸 원할 것 같다.

슬기 맞다. 가능하다면 너무 좋다.

본주 객석 밖에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만든다면 도와줄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공연에서 사용하셨던 아이템이 있나?

슬기 직접 참여한 공연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고, 해외 사례 중에서 접근성 관련해서 기획한 것들을 봤다. 손 장난감, 헤드셋, 선글라스, 비상약. 소음으로부터 차단하거나 시각으로부터 차단하는 것들이다.

유진 공기압 들어가는 조끼나 앞으로 안을 수 있는 푹신푹신한 걸 활용하기도 한다.

본주 아이템을 고르는 데도 한계가 느껴진다. 예상 범주 밖의 자극점이 많을텐데.

슬기 모든 것을 대처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게 디폴트 값이다. 내가 참여했던 공연은 한 분이 계속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밖에서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다시 들어가기도 했다. 약을 먹으면 금방 나아지는 경우도 있다. 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어필하실 거다. 그런 것을 잘 캐치해야 한다.

본주 현장에서 그걸 헤아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슬기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의 반응이 또 다른 누군가를 자극할 수 있다. 위협이 될 수 있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예매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미리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극장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마지막에 해야 할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본주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하나 헤아려보면 다 필요한데, 한 공간에 모두 들어가는 게 힘들 것 같다.

슬기 파이팅! 나도 다른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어렵다.

본주 나중에 모니터링도 하고 공연 끝나고 피드백을 받으면 체감될 것 같다. '한다', '마련했다'에 집중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최대한 많은 분이 경험하고 접근성과 충분히 가까워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 같다. '했다'에 그치면 안 될 것 같다.

슬기 한 번에 잘되지 않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보인다. 공연 직전에 모니터링하면 당사자 피드백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간 과정에 피드백을 반영해야 할 것 같다.

본주 맞다. 분명, 아쉬운 점도 많을 거다. 하지만 우리도 함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친해지고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

슬기 한 번 접근성을 해보면 다신 돌아갈 수 없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웃음)

유진 그게 극장의 목적이다. (웃음)

(* 본 회의록은 전체 회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자막과 수어통역의 위치, 릴랙스드 퍼포먼스와 쉼터 공간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자문 회의를 마무리했다. 무엇보다 접근 방향과 태도를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비장애인 시선의 한계라고 제한 짓고 '정답 찾기' 하는 데 급급했던 마음이 방향을 틀었다. 접근성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관객이 경험하는 접근성, 또 하나는 창작자가 경험하는 접근성이다. 창작자인 나는 관객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 그들과 어떤 지점이 연결되고 싶은가?

01

수어통역 -
두 겹의 통역

수어통역 - 두 겹의 통역

연극 <생.생.까>는 공인수어통번역 잘함의 김홍남, 이수현, 정지은, 정지현, 조유나 총 5명의 수어 통역사와 무대를 함께했다. 처음에는 총 2~4명의 수어 통역사가 공연 전체를 분담하여 통역하는 것을 계획했으나, 등퇴장이 거의 없는 6명의 등장인물을 적은 인원의 수어 통역사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연극 <생.생.까>는 청년부 철폐를 도모하는 개척교회 사람들의 모큐멘터리 이야기가 무대에서 구현되고, 극단 생존자프로젝트의 공동창작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이야기가 미디어로 구현되는 겹층 구조의 대본이다. 두 겹의 극 중 인물을 다시 한번 통역으로 구분 짓는 것이 큰 무리였다. '잘함'팀과 이유진 접근성 피디의 제안으로 사전 촬영한 수어 영상과 무대 위 그림자 통역으로 두 이야기를 나누어 구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어 번역 과정

연극 <생.생.까>는 완성되지 않은 초연 대본이었기 때문에 대본 수정이 연습 막바지까지 거듭 진행되었다. 수어 번역 수정도 동반되다 보니 통역사의 작업 피로도가 높을 것을 걱정했다. 하지만 번역 회의를 통해 한국수어 문법을 고려한 대본 윤색 작업이 가능하기도 했다. 다큐멘터리의 현장감을 살리고자 인물들의 구어로 가득했던 <생.생.까> 언어가 수어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한 것이다. 번역 과정에서 기존 대본과 충돌하여 조율이 필요했던 지점은 다음과 같다.

① 맥락 안에서 이해되는 추상적인 언어는 수어로 정확히 지칭할 수 있도록 언어 변환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극 중 목사가 자주 쓰는 단어 '본질'이 있었다. 여기서 본질은 맥락에 따라 근본, 이유, 동기, 사랑 등 다양한 의미로 변화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관객이 스스로 생각하는 '본질'을 대입해서 사유하게 되는 열린 단어였다. 하지만 수어에 '본질' 그대로를 옮길 수 있는 언어가 없었다. 각 문장에서 '본질'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짚어줄 다른 언어가 필요했다. 김홍남 수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수어에 없는 언어를 번역하기 위해 틈틈이 회의를 진행했다.

② 작품 의도에 따라 일부 의미는 탈락시키기도 한다.

지속되던 번역 회의 끝에 김홍남 통역사는 '본질'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지화[3]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청인 관객이 각자의 의미를 담아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이 농인 관객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청년 예술인과 개척교회 청년부 이야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단어였기 때문에, 농인 관객도 지화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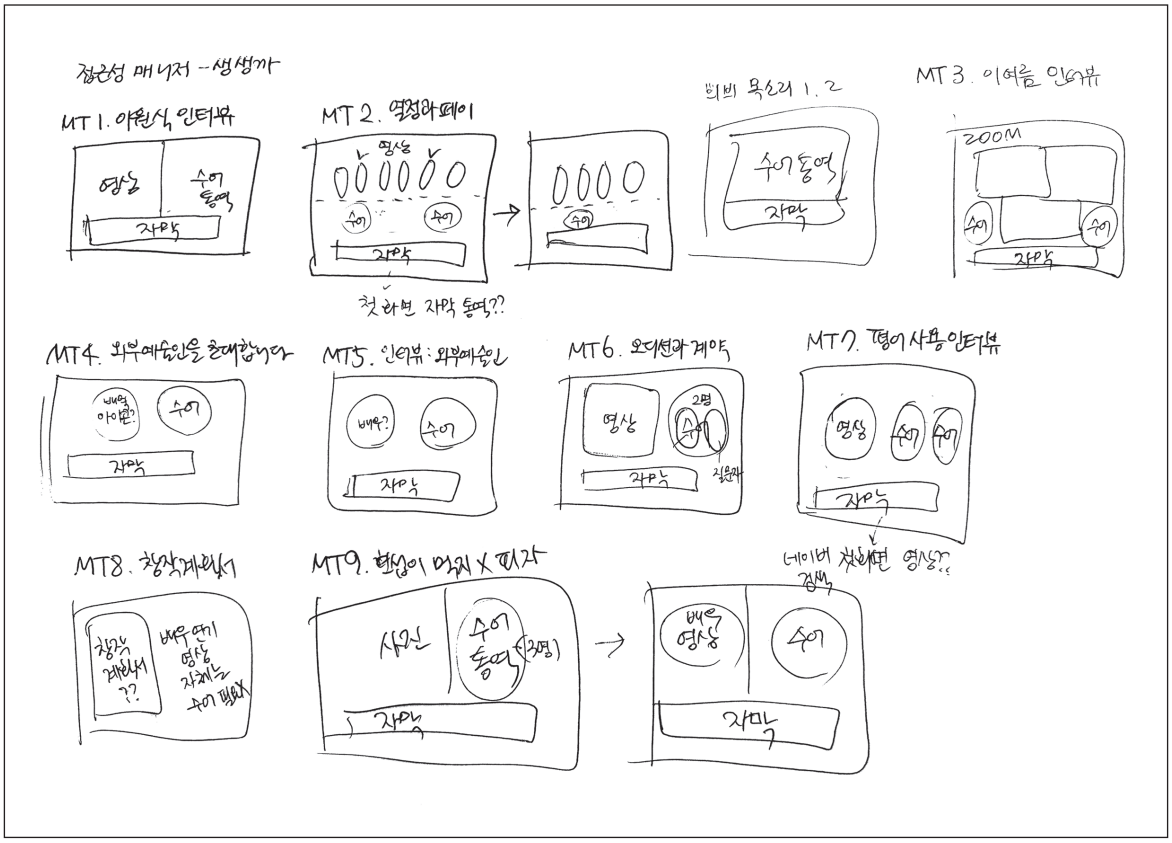
③ 의도에 따라 새롭게 만들고 약속하기도 한다.

맑눈광(맑은 눈의 광인), 젊꼰(젊은 꼰대), 빌런(악당)과 같은 신조어나 '정치', '달걀 달린 배'와 같이 극 중 새로운 의미로 쓰였던 언어는 각 의도에 맞는 새로운 표현을 조합해서 수어를 만들기도 했다. 배의 어디에 달걀이 위치할지, 몇 개가 달릴지도 함께 고민하며 만들었던 표현은 발화하는 배우의 연기에도 재료로 쓰여 재밌었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표현을 골랐던 작업이 여느 대본 작업할 때보다 신중했고, 극장에서 소통할 관객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조금 더 적확하게 짚어나갈 수 있었다.

3) **지화** 수화(手話)에서 한글 자모음이나 알파벳, 숫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방법

수어 영상 촬영과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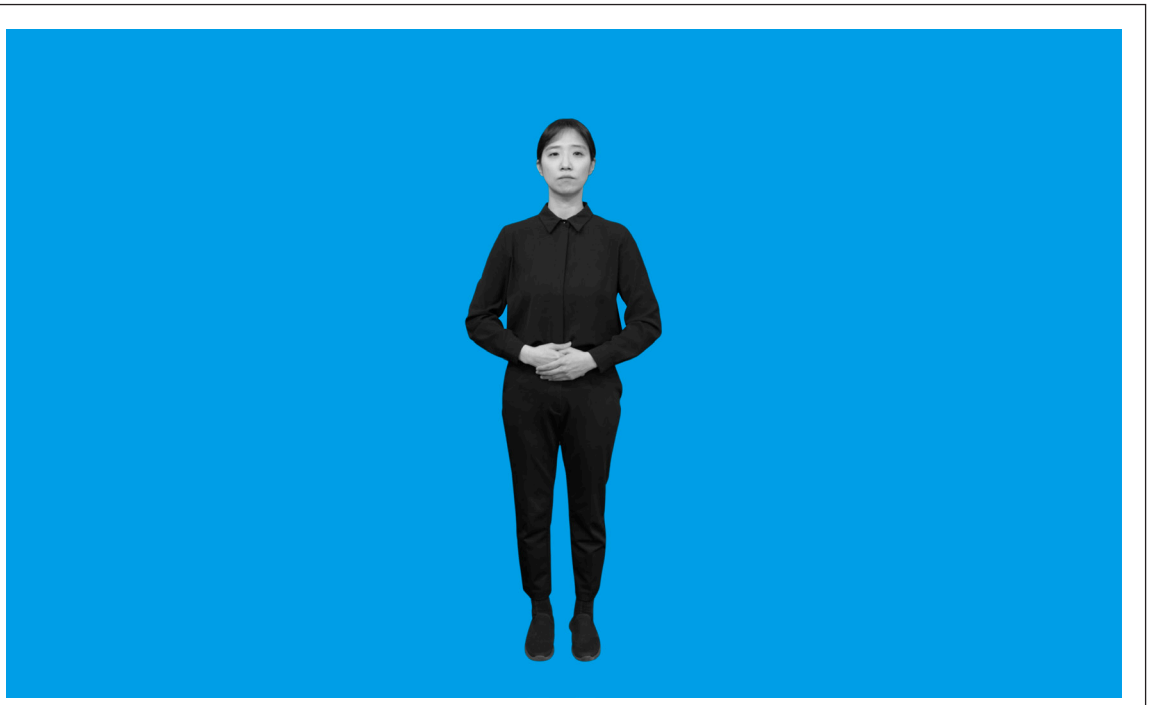
사전 촬영할 수어 대본부터 번역을 마쳤다. 다큐멘터리 영상에 대한 통역은 사전 촬영한 수어 영상을 삽입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 기록물은 영상 외에 문자 기록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역도 수어 영상으로 통일했다.



수어 영상 장면별 콘티 | 작성 강보름 접근성 매니저

2024. 4. 4 영상 제작 회의

전반적인 영상물 성격과 자막, 수어 통역사 배치에 대해 논의했다. 수어통역 영상은 다양한 연출을 위해 크로마키 배경에서 전신 촬영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맵핑하기로 정했다. 열린 객석으로 무대와 관객석에 암전이 없는 점을 염두하여 레이저 빔프로젝터 총 2대를 사용하기로 했다.



4월 8일 수어 통역사 사전 영상 촬영 | 대학로예술극장 대학로 공작소

접근성 매니저 노트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의 기존 객석을 무대로 활용하여 배우와 수어 통역사가 서고, 객석 위에 영상 스크린이 가로로 길게 배치되는 무대디자인이 확정되어 있었다. 다큐멘터리 연극이라는 특성상 영상 소스가 많이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무대디자인이 나왔기에, 영상 부분의 수어 통역은 사전 촬영하여 영상 스크린에 영상 소스와 수어 통역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크게 노출되도록 준비했다. | 강보름

다큐멘터리 영상과 수어 영상 레이어를 합치는 작업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다. 편집자가 수어를 모른다면 각 대사에 맞춰 혹은 자막에 맞춰 편집점을 잡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수어 촬영을 진행할 때 음성 대본도 함께 녹음해서 파일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편집을 마친 뒤 음성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출
저렇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연출
혹시 편집이나 영상 쪽 만질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채아
김점호대표님님이 나갔습니다.
본주연출님님이 김점호대표님님을 초대했습니다.
본주연출님

〈생.생.까〉 영상 수어와 자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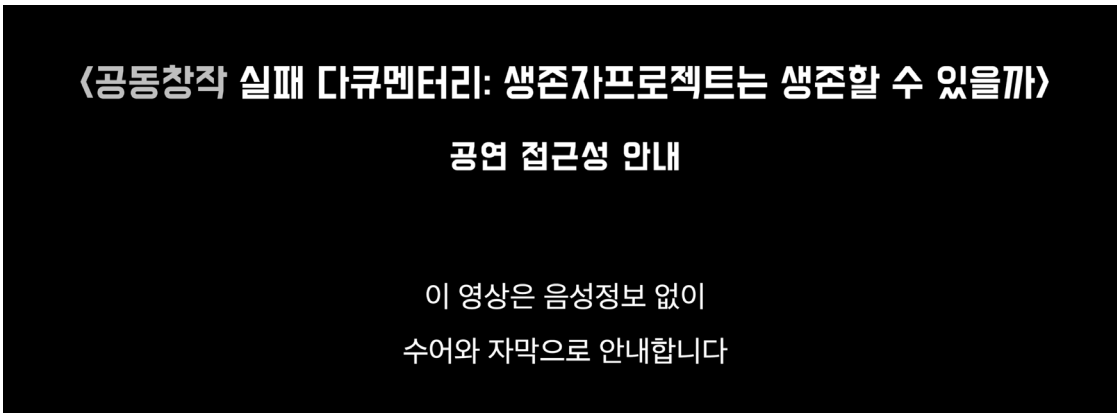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문자 기록에 대한 수어 편집이었다. 영상 없이 문자로 설명되는 기록물에서 수어 전달 속도가 느리게 느껴진 탓이다. 관객마다 의존하는 제1의 언어가 다르다 보니 수어가 아닌 자막이나 음성에 의존하는 관객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수어 전달 속도에 흐름을 맞추다 보니 전반적인 극의 리듬이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었다. 이야기 흐름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자막 송출 시점을 바꾸거나, 스크린 아래 배우의 동선을 바꾸거나, 수어 영상 속도를 전달 가능한 최소한의 빠르기로 조정하고 감수를 받는 방식으로 수정을 반복했다.

접근성 안내를 위한 사전 콘텐츠 제작

접근성 대상을 고려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수어 안내 영상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관객 전체를 위한 음성소개, 접근성 안내 페이지를 제작하기로 했다. 안내 영상의 경우, 접근성 기획 회의에서 이유진 접근성 피디와 함께 그동안 예술극장에서 제작한 접근성 안내 영상을 보며 촬영 장소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시각에 의존하는 영상이다 보니 하얀 배경의 스튜디오보다 아르코예술극장의 빨간 벽돌 배경이 조금 더 따뜻하고 눈이 편하다고 느껴졌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작품의 온라인 채팅방 콘셉트를 살려줄 수 있는 격자무늬의 대학로예술극장 1층 벽을 활용하여 촬영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공연 콘셉트에 잘 맞는 안내 영상이 완성될 수 있었다.

4월 9일 접근성 안내 영상 촬영 | 대학로예술극장 씨어터 광장

〈생.생.까〉 영상 수어와 자막



접근성 안내 영상 중

접근성 안내 페이지 QR

https://bit.ly/3Uksa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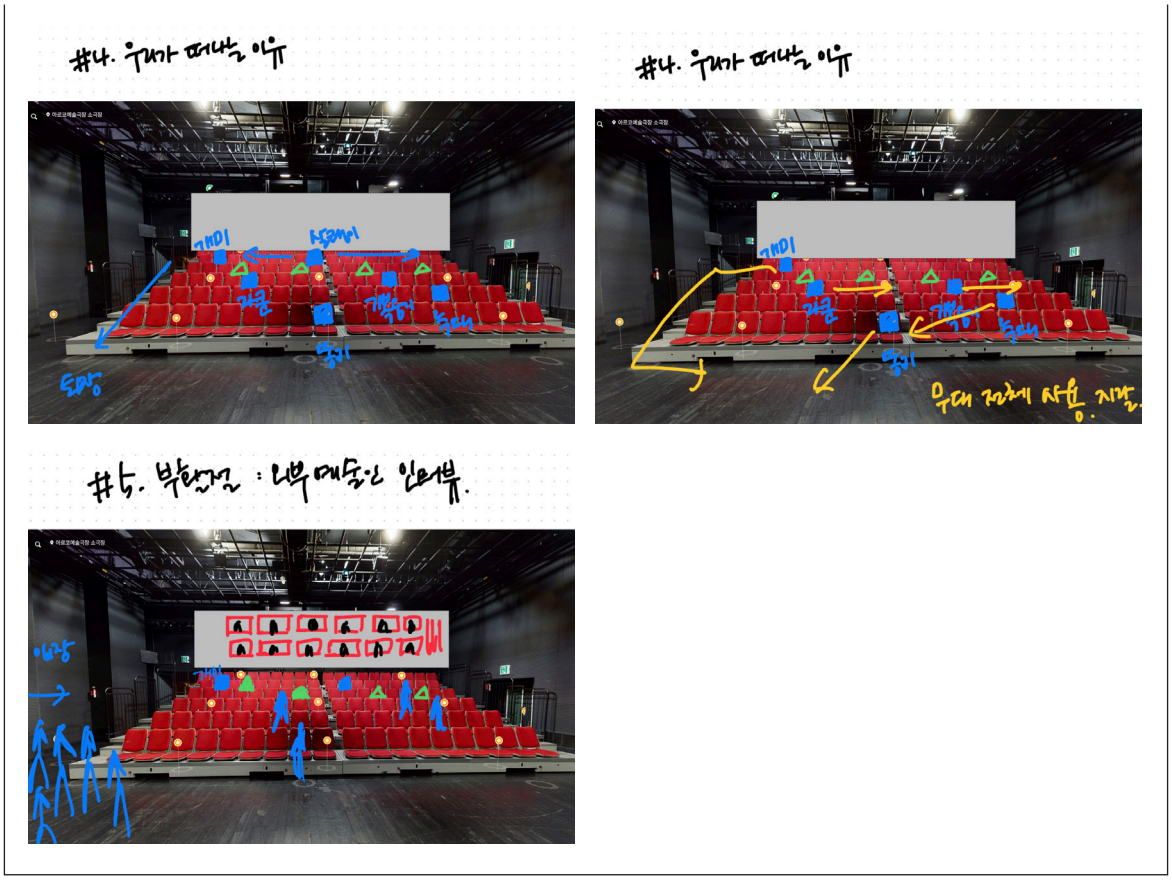
접근성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수어 통역사의 동선

연극 <생.생.까>는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의 빨간 객석 110석을 무대로 활용했다. 무대에도 객석 단차로 인한 경사가 있고, 객석 사이로 움직여야 하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연습 과정에서 동선 수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처음부터 수어 통역사 위치를 표시하며 공간 계획을 세웠다. 이때, 중요하게 챙겼던 몇 가지가 있다.

- 발화하는 배우와 수어 통역사가 한 시야에 들어올 것.
- 등퇴장 경로가 자유롭지 못한 공간 특성상 수어 통역사의 이동이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인물이 수어 통역사를 따라 발화 위치를 옮겨갈 것.
- 대사나 움직임이 없는 장면에서는 수어 통역사의 위치가 청년부를 바라보는 사회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청년부 커뮤니티 설정 안에서 수어 통역사 또한 커뮤니티 일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것.

무대 동선 계획



이 네 가지는 수어 통역사가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계획한 것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동선 연습을 시작하면서, 이 계획 또한 선입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선입견은 수어통역이 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었다. 마치 어울리기 힘든 것을 억지로 아우르려고 애쓰고 있는 듯했고 그 결과, 수어통역 순기능 외의 다른 역할을 계속 찾고 있었다. 수어 통역사가 극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고, '접근성 공연이지만 접근성만을 위한 공연이 아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왜 수어통역과 극이 친해지기 힘든 사이라고 생각했을까? 무대 위의 모든 요소를 조화롭게 구성 짓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다시, 정확한 통역과 전달을 위해 여러 시도를 덜어내었다. 배우들과 큰 동선을 만들고 수어 통역사 위치가 표시된 동선 계획을 공유하며 의논을 지속했다. 김홍남 통역사의 제안과 설명 덕분에 농인 관객에게 전달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처음 세웠던 계획의 문제점을 다시 체감했다. 전달과 소통 지점을 고민하기 전에 극과 수어통역의 조화로움을 먼저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

수어 통역사 동선 연습 | (위)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아래) 생존자프로젝트 연습실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임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수어 통역사1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글살쾡이다.
- 수어 통역사1은 정글살쾡이로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한 통역사다.
  그러므로 수어 통역사1은 정글살쾡이다.
- 지금 무대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수어 통역사1과 정글살쾡이뿐이다.
  그러므로 수어 통역사1은 정글살쾡이다.

하지만 이것을 벗어나 수어 통역사가 갑자기 극 중 인물 외의 역할을 수행한다든지 갑자기 인물과 직접 대화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수어통역에 의존해 대사를 전달받았던 관객은 상황을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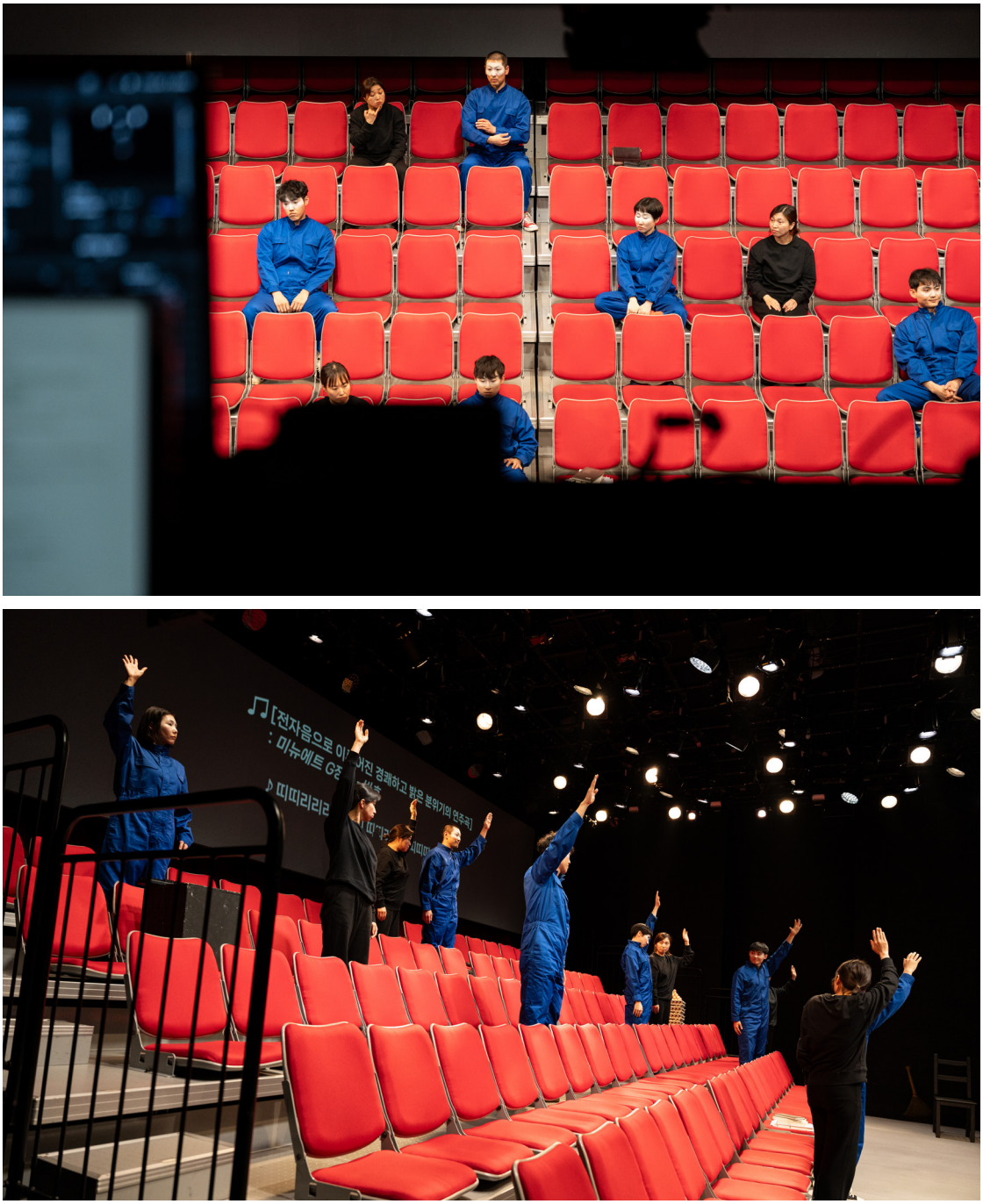
비록 1:1의 그림자 역할 분담은 아니었지만(등장인물은 6명, 수어 통역사는 5명이었다) 그림자 통역 동선을 그렸고, 통역사가 오롯이 통역을 통해 소통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많은 연출선을 덜어내었다. 출연진 모두가 즐거워했던 일부분만 유지했다.

	김정호/살쾡이/대표	본주/개미/연출	김태현/돈키똥키/조연출	김현섭/개늑대/단원	이민주/라쿤롤/단원	현채아/기복숭이/단원	수통사1/사회	수통사2/사회	이원식	내레이션	여름
1. 이곳은 안전해											
대사	홍남	유나	홍남	지현	유나	지은	홍남	지현			
Media Track 1.						지은			지현		
대사	홍남	유나	홍남	지현	유나	지은					
Media Track 2				지현	유나					홍남	
대사	홍남	유나	지은	지현	유나	지은					
Media Track 3		유나		지현							홍남
대사	홍남	지현	홍남	지현	유나	지은					
2. 창작자가 필요해											
대사	홍남	유나	지은	지현	유나	지은					
Media Track 4(자막)											
대사		유나	홍남	지현	유나	지은					
3.외부 예술인이 필요해											
Media Track 5		유나	홍남								
대사	홍남	지현			유나						
Media Track 6-1	홍남				유나						
Media Track 6-2	홍남	유나									
대사		유나		지현		지은					
Media Track 7	홍남	유나		지현		지은					
대사		유나	홍남	지현	유나	지은					
Media Track 8(영상)											
대사							홍남	지현			
Media Track 9		유나		지현		지은					
Media Track 10						지은					
대사		유나		지현	유나	지은					
4. 우리가 떠나는 이유											
대사	홍남		현주	지현		지은					
Media Track 11-1	홍남										
Media Track 11-2		홍남		지현	유나	지은					
대사	홍남	유나	홍남	지현	유나	지은					
5.부활절											
대사							홍남	지현			
Media Track 12(인터뷰)											
대사	홍남	유나	현주	지현		지은					

수어 통역사의 역할

동선 수정과 연습을 거듭하면서 크게 깨달은 건 수어 통역사의 역할이었다. 통역을 하지만 통역만 하는 건 싫었고, 함께 움직이지만 어수선해지는 건 싫었고, 경험 없이 모호하게 가지고 있었던 불호가 청인 관객을 의식하고 청각에 의존하는 나를 의식해서 생겨난 것

들이었다. 음량을 소거한 채 연습 영상을 보고 나면 무대 위 어떤 기능이 제 몫을 드러내야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미숙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다른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다. 수어통역은 공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통'에 대한 고민을 확장해 주었고, 소통방식이 다른 이들에게 말 걸기 수단이 되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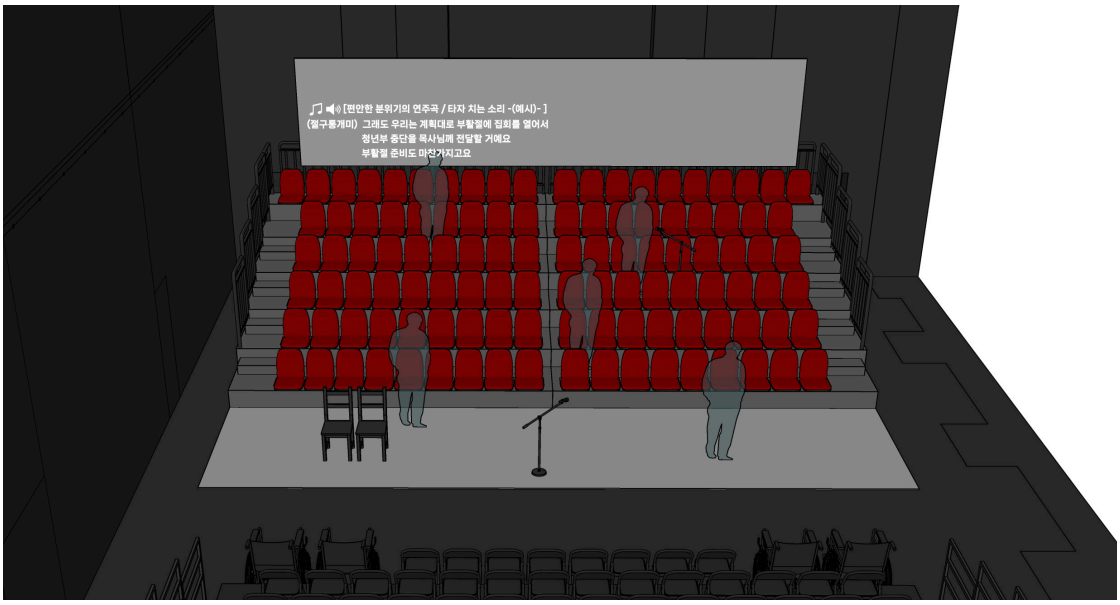


무대 위 수어통역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02
자막해설
[묵직하고 비장한

자막 레이아웃

자막을 위한 모니터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다큐멘터리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 제작된 대형 스크린을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한 화면 안에 여러 층의 자막 해설을 구분 지어 표현해야 했다. 우선 영상 레이아웃을 먼저 짜고, 그 위에 자막 위치나 색상, 폰트 크기 등을 디자인하며 장면에 걸맞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기해 보는 것을 시도했다.



자막해설과 영상 송출을 위한 스크린

자막 제작팀	청년부 대사	영상 제작팀	다큐멘터리 대사
	기록 자막		다큐멘터리 소리 정보
	소리 정보		다큐멘터리 기타 정보
	기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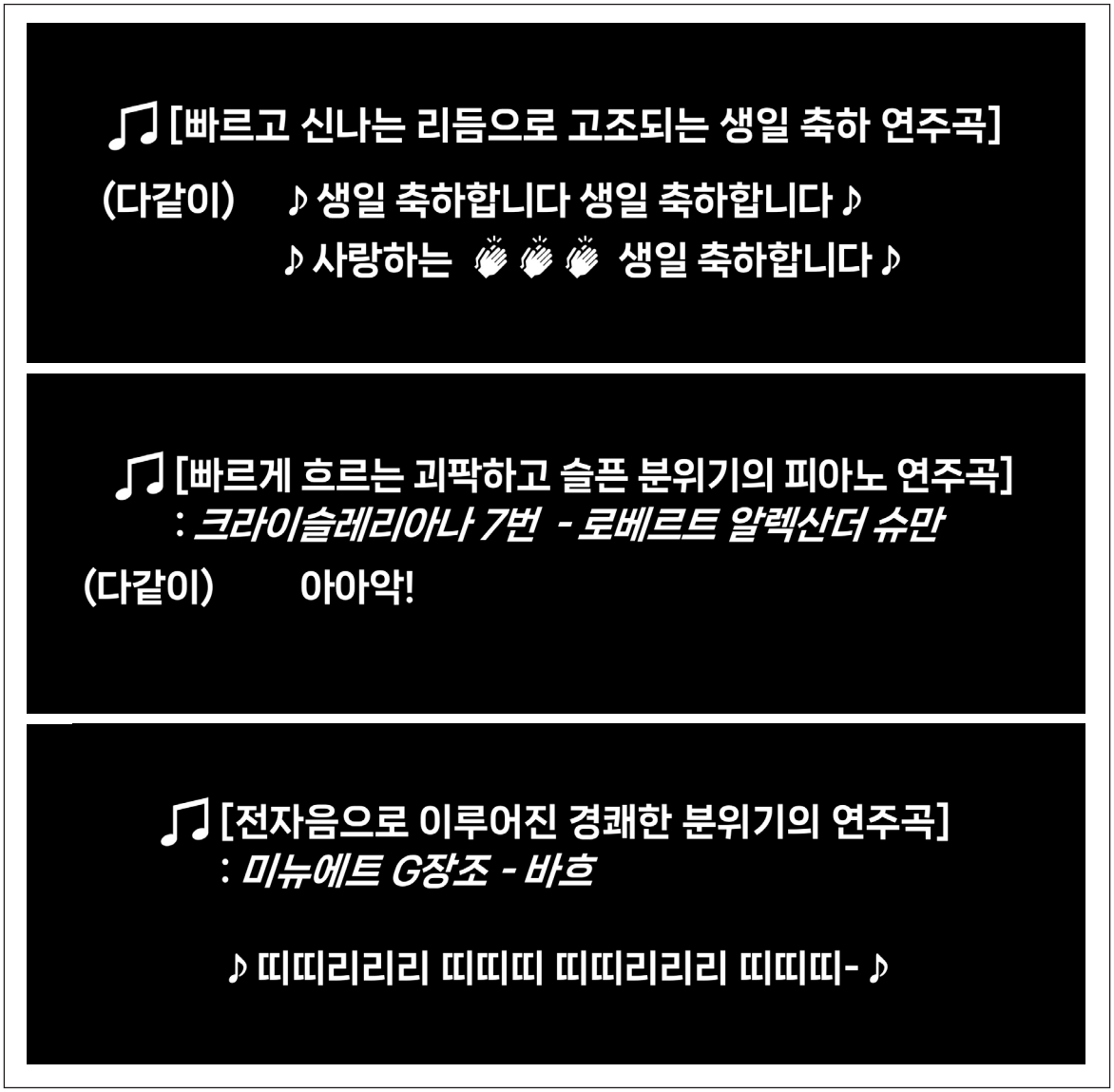
이청 자막해설 디자이너가 전반적인 자막을 제작했고, 다큐멘터리 영상에 포함된 대사는 윤민철 영상 디자이너가 자막을 더하는 것으로 작업을 분담했다. 덩달아 자막 원고도 자막팀과 영상팀 따로 나누어 수정 공유가 이루어졌는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자막 파일은 현장에서 수정이 빠르게 가능했지만, 영상 내 자막은 영상 편집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하다 보니 수정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었다.

소리 정보 '지금, 여기, 필요한 감각'

다큐멘터리에서 앰비언스[4]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현장감을 더하고, 때로는 이것이 상황을 설명해 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다큐멘터리의 성격을 살리고 싶어 '음악을 하나도 쓰지 말아보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막해설과 수어통역이 더해지면서 이 공연만의 리듬을 형성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접게 되었다. 오히려 앰비언스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인위적인 사운드를 활용해 상호 극대화해 보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익명 채팅방에 입장하는 전자 효과음, 전자음으로 편곡된 클래식 음악, 확성기가 내려오는 기계 소리 등. 장면에 어떤 분위기를 더해주는지 간단하게 표기하되 임의의 의성어를 추가 표기하여 상상할 수 있길 바랐다. 반대로 다큐멘터리 영상에 포함되는 주변 소음 정보는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주로 인터뷰 영상이 많았고 인물 간 대화에 집중되어 있어 앰비언스가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꼭 전달해야 하는 소리 정보는 아닌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모두 삭제했다.

소리 정보의 자막 표기

4) **앰비언스(ambiance)** 자연적인 공간성을 의미하는 말로 어느 특정한 공간 내에 존재하는 음향이다. 자연의 소리뿐 아니라 곤충, 동물 소리 등 주변 환경의 여러 소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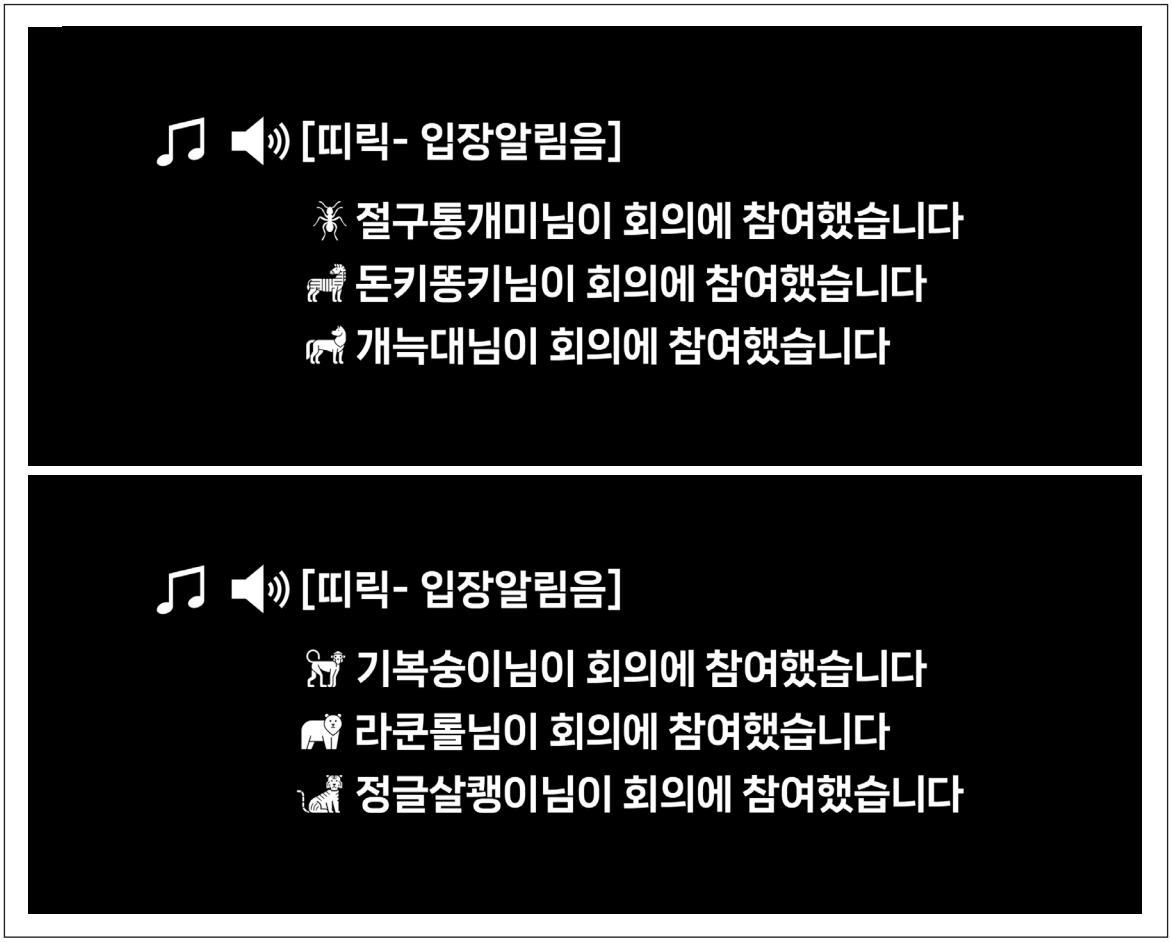
소리 정보의 자막 표기

발화하는 대사 '소리 나는 대로 적어도 되나요?'

자막 표기에 있어 고민 사항이 있었다면 의도치 않게 전달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었다. 특히 다큐멘터리 영상은 문맥이 혼란스러운 구어가 많았고, 이것을 그대로 표기했을 때 이해를 흐트러뜨리는 지점이 생기는 것이었다. 국어문법에 맞춰 수정을 하자니 다큐멘터리의 현장감을 훼손했고, 그대로 표기하자니 자막에 의존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너무 많았다. 고민 끝에 괄호 지문의 설명을 더하는 것으로 최대한 이해를 도우려 했다.

픽토그램(pictogram)의 다양한 활용

소리 정보에 대한 자막 표기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픽토그램[5]을 붙여 설명했는데 소리 정보 외의 정보 전달에도 유용했다. 등장인물의 이름이 익명 채팅방 아이디로 진행되다 보니 관객 모니터링에서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청 자막 해설 디자이너가 각 캐릭터에 맞는 픽토그램을 추가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채팅방 로고에 사용했던 캐릭터 이모티콘을 활용해 픽토그램을 직접 만들었다. 인물 등장에 사용하면서 캐릭터 설명에 힘을 더하기도 했지만, 극의 설정을 한층 개성 있게 만들어주었다.



캐릭터 픽토그램

5) **픽토그램(Pictogram)** 그림을 뜻하는 '픽처(picture)'와 문자 또는 도해를 의미하는 '그램(gram)'의 합성어이다. 이는 어떤 대상이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합한 그림을 가리킨다. 픽토그램의 목적은 문자를 모르더라도 직관적인 기호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있다.

음성언어를 대신한 독립적 자막해설

자막 제작 **이청**

처음 무대 디자인을 만났을 때, 자막해설의 기능 중 가독성만큼은 걱정 없이 가져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번에는 수어 통역사와 자막해설과 배우의 위치를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시야 방해가 생기지 않을지 이리저리 실험해 보지 않아도 아주 잘 보이는 위치에서 자막해설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프로덕션 초반 시점에서부터 공연 중 송출되는 영상에도 발화하는 대사뿐 아니라 각종 소리 정보에 대한 텍스트를 삽입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나누고, 영상 내에 삽입될 자막해설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출님께서 대본 자체에 소리 정보에 대한 텍스트를 상세히 적어두셔서 자막해설 제작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 셋업 이후 보완한 자막해설 디자인 중에 배역명을 나타내는 동물 이모티콘을 이용한 점도 흥미로웠다.

이번 작업에서 인상적이었던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다. 첫째는, 수어로만 이루어진 대사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영상을 통해 극 중 인물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에서 그 질문이 음성언어로 발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속 수어 통역사의 수어와 자막해설을 통해서만 발화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관객이 순간적으로 수어와 자막해설에 집중하는 것이 느껴지곤 했다. 둘째는, 배우들이 가면(필터)을 벗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그동안 배역명으로 표기해 오던 화자를 그 순간부터는 '본명'으로 바꿔 표기하는데, '익명'으로 존재하던 인물들이 '본명'을 말하며 배우 본인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자막해설을 통해 한순간에 캐치할 수 있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글_이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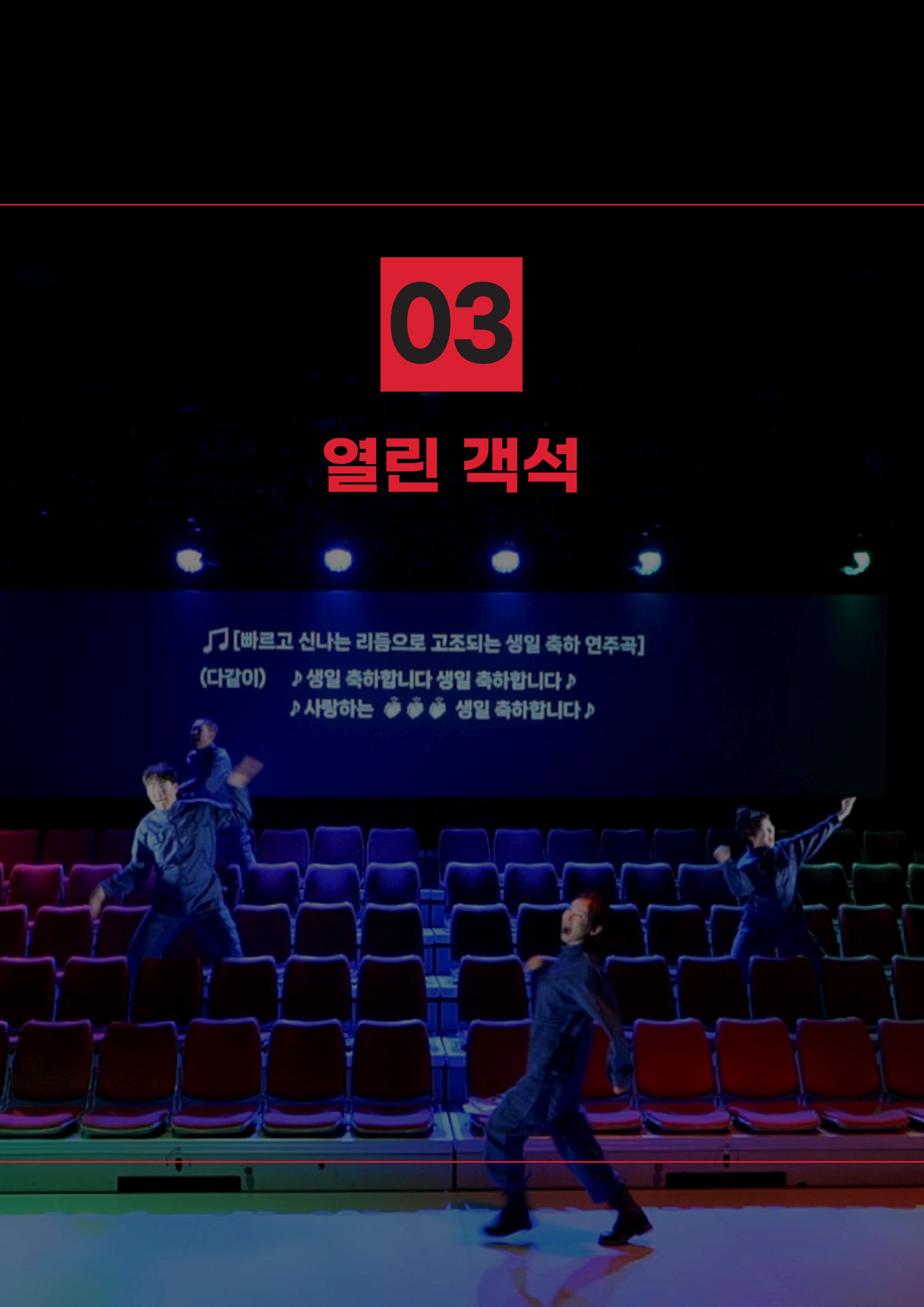
자막해설 현장 수정 | 영상 자막 운영

‘우리는 제1 언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자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 이청 자막해설 디자이너의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연출자로서 어려움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수어통역과 자막해설 제작을 함께하면서 느낀 건 관객의 제1 언어는 모두 다르며 선택도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전달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감각의 사각지대를 걱정하기에 앞서, 음성, 자막, 수어 세 언어가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모두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했다. 청인 관객은 배우의 음성에서 전달받지 못한 부분을 자막을 통해 읽어내고, 수어 통역사의 손짓과 표정에서 또 다른 정서를 느꼈다고 한다. 농인 관객은 자막 또는 수어 중 자신의 제1 언어에 첫 번째로 집중하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시각 요소에서 또 다른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연극 <생.생.까>에서 공존한 세 언어가 다각도의 이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예컨대, 공연에 쓰인 전자음의 클래식 음악은 멜로디는 익숙하나 음악 정보는 생소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작곡가와 곡명을 함께 표기하여 청인 관객도 음악 정보에서 또 다른 감상을 불러올 수 있길 기대했다.

03

열린 객석



감각과 수용범위에 관한 고찰 - '극장은 안전하다'

2020년 코로나19로 많은 공연이 취소되고 온라인 극장으로 대체되던 때(코로나의 여파는 최근까지도 계속됐다), 모든 극장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1석 띄어 앉기 지침을 따라 운영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불안장애를 겪는 이들이 많아졌고, 극장에서도 불안장애 관객을 자주 만나곤 했다. 극장은 공황장애, 폐소공포증 같은 불안장애 관객에게 부정적인 자극 요소가 너무 많았다. 다수의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 앉았고,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나가지 못했다. 한번 퇴장하면 재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는 중도에 나가지 말아 달라는 의미에 가까웠다. 사람들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컴컴한 객석 사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자리를 지켜야 했다. (지금도 그렇다) 호흡곤란 발작으로 극장을 빠져나와 문밖에서 소리만 엿듣거나 무음의 모니터로 관람을 대신하고 돌아가는 관객도 만났다.

이런 관객 중 일부는 공연 중에 나갈 수 있는지, 쉽게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문의했다.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필요했던 것이다. 제약 없는 약속 하나가 관객에게 공간의 의미를 다르게 제시해 준다는 것을 느끼고 대피존을 계획했다. 주변 관객을 눈치 보지 않고 쉽게 극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열린 좌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대피존 관련 기획안을 보고 이유진 접근성 피디는 릴랙스드 퍼포먼스를 제안했다. 자유로운 입·퇴장은 물론 관객의 신체적, 정서적 감각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의견을 더했다. 강보름 접근성 매니저는 연극 <생.생.까>가 다 감각 장애인을 위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연인지에 대해 질문을 더했고, 덕분에 정신장애를 가진 관객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대피존에서 릴랙스드 퍼포먼스로, 릴랙스드 퍼포먼스에서 열린 객석으로 개념이 달라졌다. 이때 함께 고안된 것이 '도움가방'이다. 릴랙스 쿠션, 인형, 손 장난감, 일회용 산소 호흡기 등 도움가방 안에 제공될 여러 품목을 고민했는데 접근성 피디가 국내외의 활용 사례를 리서치했다. 이번 시도를 계기로 극장 이용 관객에게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템을 선택했다.

도움가방

도움가방은 소음 감소 헤드셋, 일회용 이어플러그, 스트레스볼, 감정카드로 구성했다.

감정카드

관객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또는 상태 전달에 어려움을 겪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했다. 감정카드를 들어 보이거나 동행자에게 전달할 때 관객석 옆에 상주하는 하우스 어셔가 이동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카드에는 '① 잠시 나가고 싶어요. 나가는 곳을 안내해 주세요. ②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③ 퇴장하고 싶어요. 혼자 이동하기 힘들어요.' 3가지 요청이 적혀있다.

스트레스볼(Stress Ball)

정서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6]피젯 토이(Fidget Toy)다. 긴장을 완화해 주거나 집중을 돕거나 정서 불안을 해소해 줄 용도로 준비했다. 안티 스트레스볼(Anti-stress ball)이라고도 한다. 처음 스트레스볼이 도착했을 때 강한 아로마향이 났는데 일부 관객에게는 불쾌한 감각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접근성 피디가 예술극장 옥외에서 오랫동안 살균해서 완성된 아이템이기도 하다.

소음 감소 헤드셋

주변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헤드셋이며 일회용 이어 플러그와 함께 착용 시 감소 효과가 더 커진다. 청각 자극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잠시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착용함으로써 관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일회용 이어플러그

소음 감소 헤드셋과 함께 간편하게 청각 자극을 감소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목적으로 제공했다.

6) **피젯 토이(Fidget Toy)** 손을 곰지락거리며 가지고 노는 장남감

불안장애를 위한 열린 객석

접근성 매니저 **강보름**

첫 접근성 제작 회의 때 이 공연의 접근성 증대 대상이 될 관객층을 협의하였는데, 본주연출은 '릴랙스드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연으로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 성인 관객의 도전적 행동, 특별한 소리, 감각적 특성에 의한 반응 등이 공연을 관람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극장과 공연의 대내외적 환경을 조절한 공연)'을 희망했다. 그러나 이번 공연이 극단 생존자프로젝트의 첫 접근성 공연이라는 점과 공연의 내용과 주제를 고려하였을 때, '불안장애가 있는 관객을 포함하여 모든 관객을 위한 열린 객석'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 현실적으로 주어진 시간과 예산 내에서 어떤 관객들을 환대할 것인지 정확하게 타겟팅하지 않으면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열린 객석은 이유진 접근성 피디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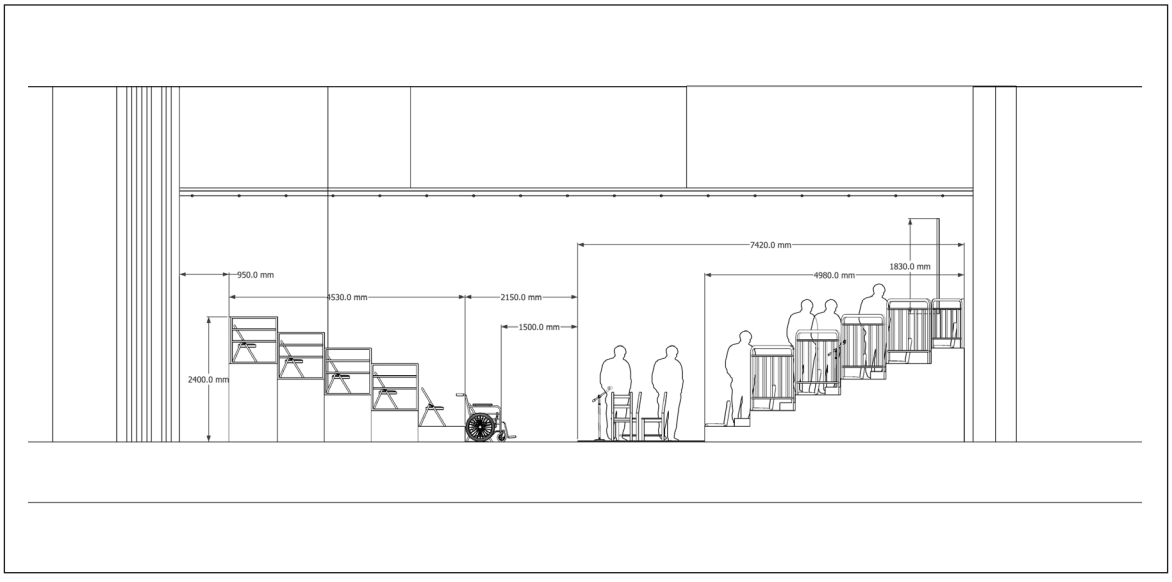
-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퇴장하거나 재입장이 가능합니다.
- 예술극장에 도움가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성품 : 스트레스볼, 소음 차단 헤드셋, 감정카드)
- 도움가방이 필요한 분은 공연 당일 물품보관소에 말씀해 주세요.
- 도움가방은 공연 종료 후, 물품보관소에 반납해 주세요.
- 일회용 이어플러그가 필요하신 분은 공연 당일 물품보관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륜 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공연을 관람할 때 스트레스볼을 만지작거리며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피드백을 전해주었다.

글_강보름

접근성을 포함한 개축 객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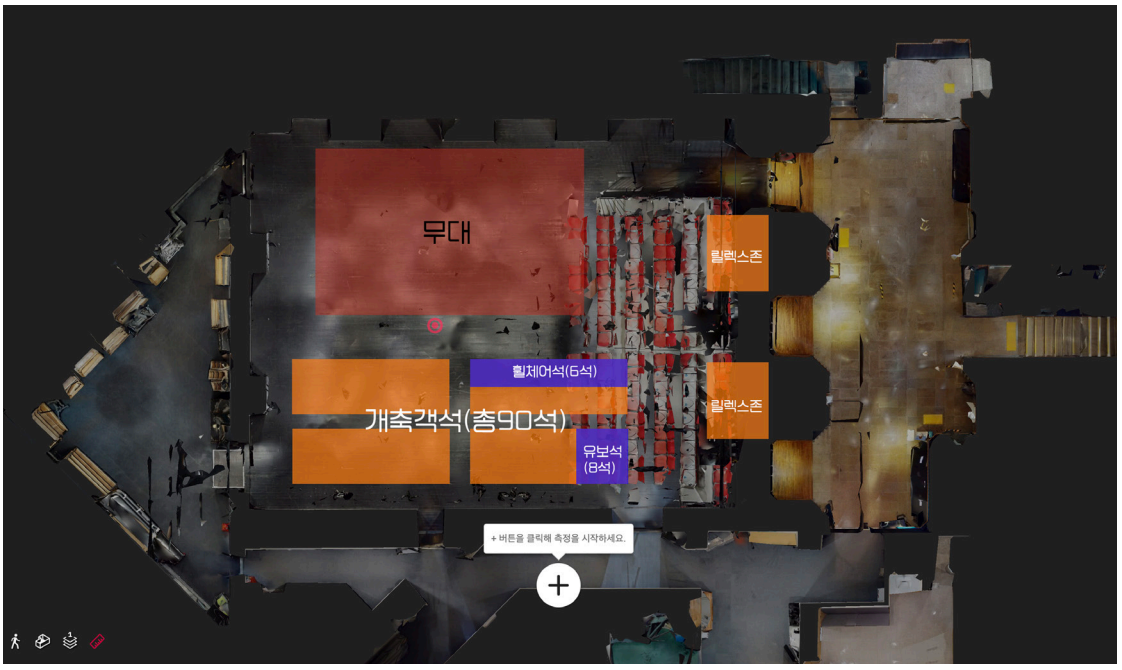
연극 <생.생.까>의 관객석은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의 기존 객석을 사용하지 않고 개축 객석 비지정석으로 운영되었다. 무대가 이야기하는 곳, 발화하는 곳이라면 객석은 청자의 자리라고 여겨, 극장이 보유한 청자 자리를 무대로 옮겨왔다. 공동창작 실패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고민했던 소통에 대한 주제 의식은 청자의 자리를 빌려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그 방식을 선택하게 했다. 더불어 화상 채팅방에서 튀어나온 익명의 캐릭터들이 각자의 창에 들어가 좁고 한정된 통로에서 이동에 제약받는 모습은 위계 폭력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청년 예술가의 모습이기도 했다. 거울 효과로 관객의 모습이기도 했다. 기존의 극장 객석이 만든 무대와 개축한 새 관객석이 서로 마주 보는 구조 안에서 창작자와 관객 모두 청자의 자리에서 불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느끼길 바랐다. 더불어 이 이야기에 동참할지, 동참하지 않을지 선택도 열린 객석을 통해 자유롭길 바랐다.



개축객석 도면

남경식 무대디자이너와 개축 객석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휠체어석 배치와 입·퇴장 방해를 최소화하는 이동 경로를 의논했고 다음 세 가지 제안이 중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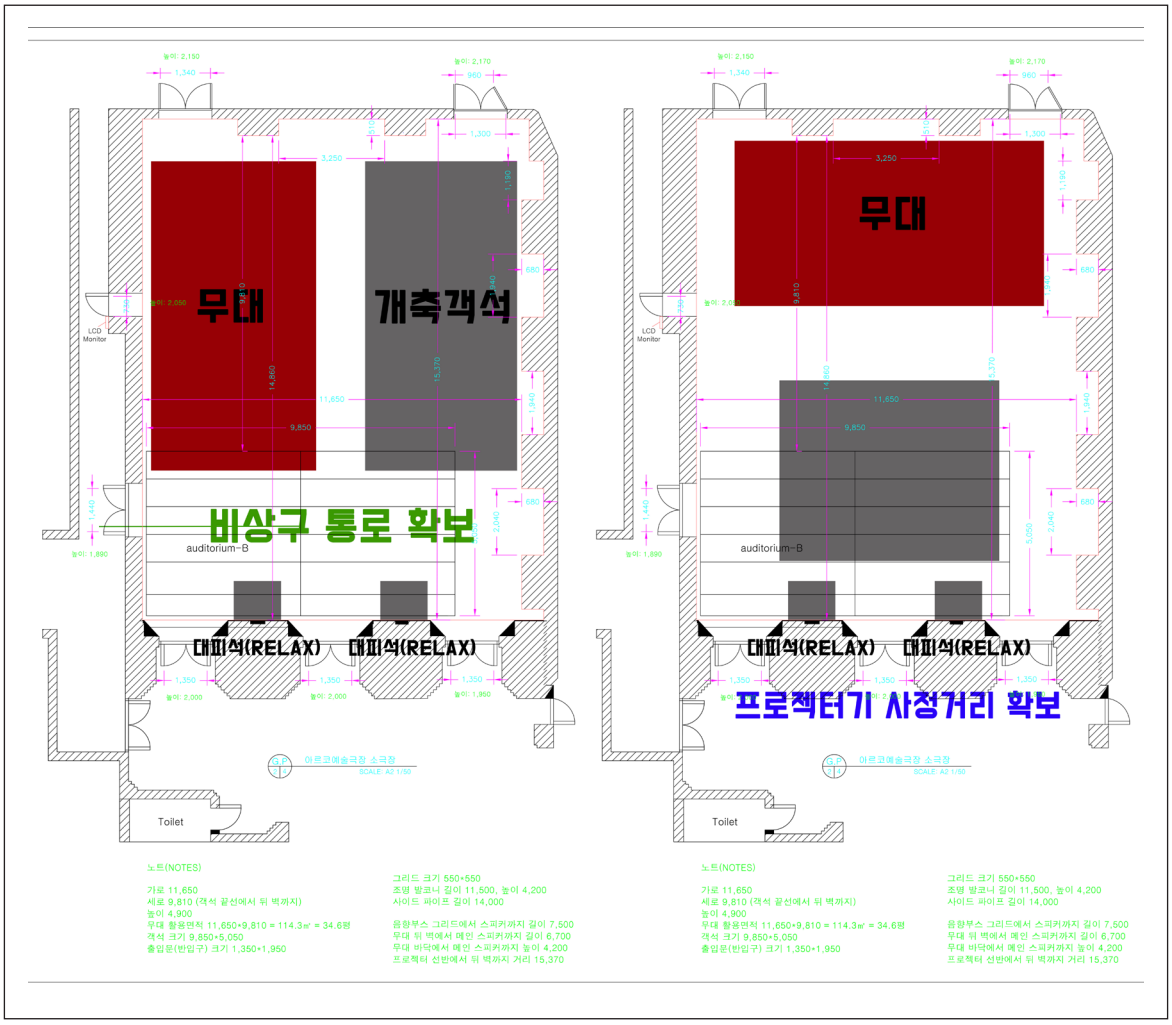
• 휠체어석을 최대한 확보하자.
• 기존 객석보다 좌석 간의 여유를 넓히자.
• 자유로운 입 · 퇴장을 위해 이동 통로를 만들자
• 휴식 후 다시 객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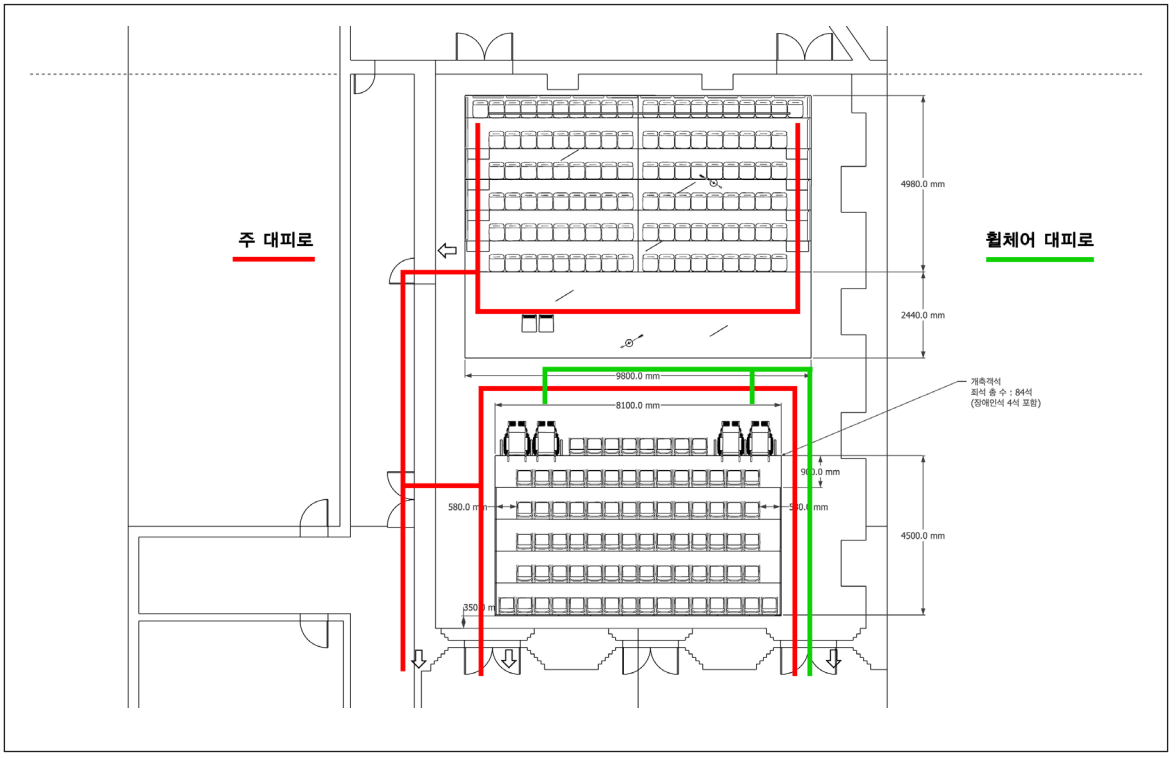
개축객석 계획 초안

하지만 원소미 무대감독과 함께 극장 실측을 진행하면서 계획 수정이 필요했다. 무대로 활용할 기존 객석 크기가 고정되어 있고 남는 공간을 개축 객석으로 활용해야 했는데, 위 세 가지를 모두 적용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개축 객석 좌석 수를 다수 줄이면 가능성이 열리기도 했지만, 무대에 비해 관객석이 협소해진다면 처음 의도한 화자=청자 거울효과가 약해지는 것 같았다. 무대가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휠체어를 포함한 대피로 확보와 빔프로젝터의 투사 거리, 자막 시야 확보를 위한 객석 단차, 자막 오퍼레이팅 위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 자막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단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큰 제약이 생겼다. 관객 이동 경로가 확보되었던 객석 4구역 모두 각각의 안전 난간 설치가 필요한 것이다.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개축 객석 제작 예산에 맞춰 구역별 이동 경로 없이 하나로 통일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바닥 세트의 여유를 위해 배치 방향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자유롭게 입 · 퇴장이 가능한 객석 구조인가? 사람들 시선에 방해받지 않는 쉼터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객석 계획이었음에도 작품의 표현 방식을 고수하려는 욕심에 실현하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았다.



개축객석 계획 2안 | 개축객석 계획 3안



개축객석 계획 최종, 대피로 표기

출입구 개방과 하우스 운영

열린 객석을 운영하며 출입구를 개방한 채로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술극장 하우스 팀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했다. 접근성과 함께 구축해야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접근성 제작회의에서 황수희 하우스 매니저와 함께 운용 지침을 의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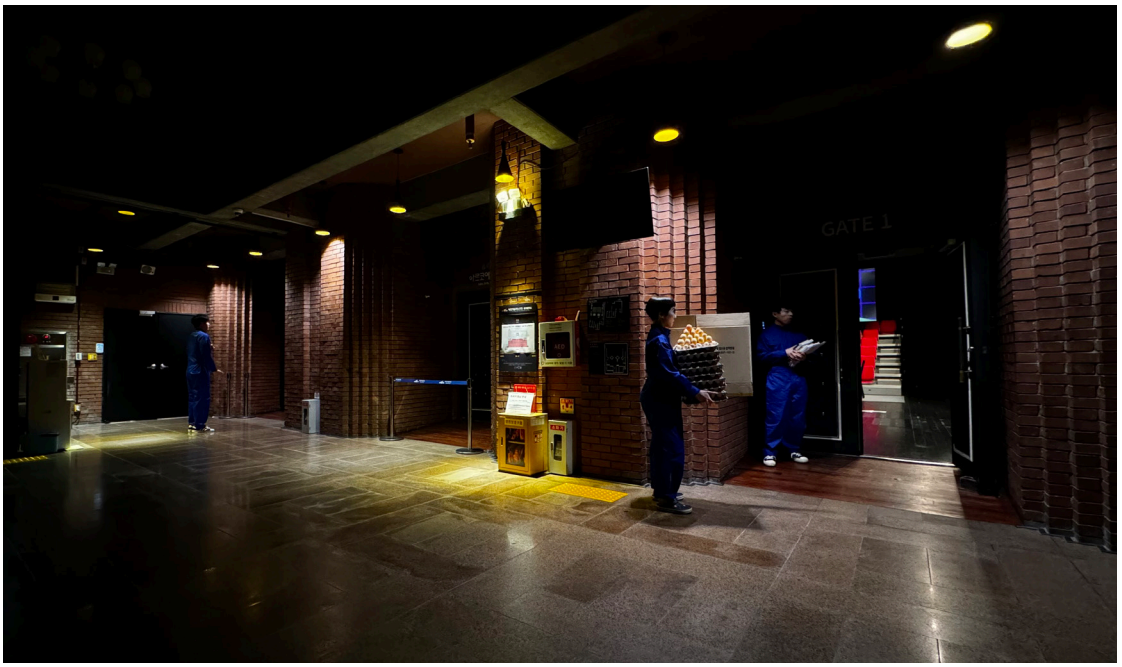
하우스 운영 회의 기록

- 전 좌석 비지정석으로 오픈한다.
- 관객 입장 시 1번 출입구를 이용하고 공연 중 1번, 3번 출입구를 상시 개방하여 공연 중 입 · 퇴장로와 비상 대피로로 이용한다.

- 열린 객석이지만 지연 관객 입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람의 방해를 줄이기 위해 지연 관객 좌석을 지정한다.
- 공연 전 접근성 안내 시 하우스 어셔가 참여하고 좌우 통로를 확보한다.
- 공연 중 관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객석 1열 좌우로 하우스 어셔를 배치한다.
- 비상 상황 발생 시, 휠체어석 이용 관객이 휠체어로 퇴장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휠체어 사용자 1명당 2명의 어셔가 배정되며 이에 해당하는 인력을 구성한다.
- 본 공연의 휠체어석은 총 4석이며, 총 8명의 전담 스태프가 필요하다.
- 열린 객석으로 로비의 조명을 전부 소등하지 않는다. 부분 점등할 위치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선택한다.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로비 점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원소미 무대감독과 함께 소등할 조명과 점등할 조명을 확인했다. 이동에 위험하지 않은가? 너무 어두워서 무섭지는 않은가? 공연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정했다. 출입구 근처의 조명과 조도가 높은 로비 샹들리에 조명은 공연장 안까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등하고, 조도가 낮은 비상등과 지하 1, 2층의 계단 조명을 점등했다.

열린 객석 운영을 위한 현장 점검 회의 | (왼쪽부터) 예술극장 원소미 무대감독, 황수희 하우스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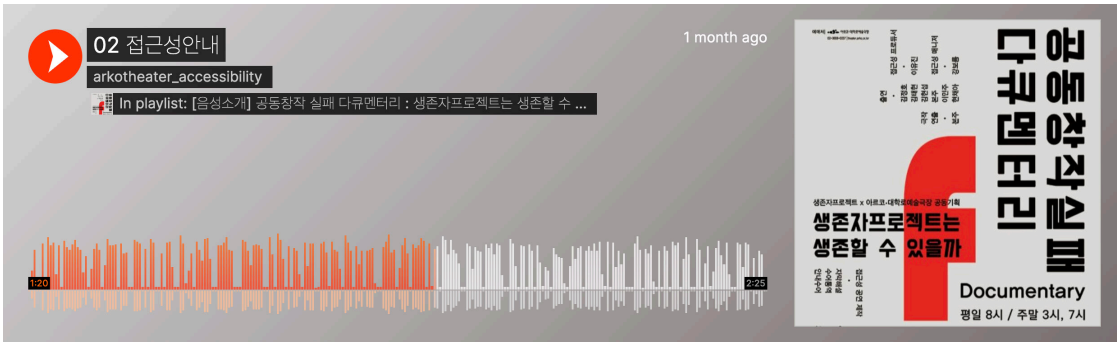
열린 객석 공연 중 로비

04

음성소개

강보름 접근성 매니저, 이유진 접근성 피디와 기획 단계에서 함께 고민한 것은 연극 <생.생.까>가 접근성을 통해 어떤 관객을 만날 것인지였다. 1차로 청년 예술가를 가장 만나고 싶었고, 예술가에는 농인 배우, 수어 통역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농인 관객을 주요 대상으로 정하고 수어통역과 자막해설에 힘을 싣기로 했지만, 이 공연이 모든 관객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되었다. 사전 예매를 통해 다양한 장애 관객으로부터 관람 신청이 들어온다면 이를 위한 접근성이 필요했다.

음성소개 제작



〈생.생.까〉 음성소개 | 사운드 클라우드 페이지 https://bit.ly/3U162l2

음성을 통해 공연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출연진 현채아 배우가 전체 녹음을 맡아 진행했다. 배우의 음성과 캐릭터가 함께 매치되면 인물 이해에 도움이 되므로 출연진이 모두 참여하여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음성 소개했다.

음성소개와 비상대피 안내 방송 대본

음성 공연 소개 대본

대본 **강보름** | 낭독 **현채아** | 음향 **구자성, 사운드매니아스튜디오**
기획 **이유진, 김태임,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음성소개 녹음 | 현채아 배우

① 공연 소개

안녕하세요. 연극 〈생존자프로젝트는 생존할 수 있을까〉의 음성 소개를 듣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출연 배우 현채아입니다. 〈생존자프로젝트는 생존할 수 있을까〉 줄여서 〈생.생.까〉는 본주가 쓰고 연출했으며, 김정호, 김태현, 김현섭, 본주, 이민주, 현채아 배우가 출연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합니다. 금요일은 오후 8시, 주말에는 오후 3시, 7시 총 5회차 공연입니다. 작품의 특성상 비지정석으로 운영합니다. 만 13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관람시간은 약 100분입니다. 연극 〈생.생.까〉는 청년 예술인이 모인 극단 생존자프로젝트가 공동이라는 이름하에 겪었던 과정을 1년 동안의 기록으로 엮은 공동창작 실패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들의 기록은 공동의 이름으로 어느 것 하나 솔직할 수 없었던 개인과 공동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② 접근성 안내

연극 〈생존자프로젝트는 생존할 수 있을까〉는 생존자프로젝트와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의 공동기획 공연으로, 수어통역과 한글 자막해설, 불안장애를 포함한 모든 관객을 위해 열린 객석으로 운영합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퇴장하거나 재입장이 가능합니다. 공연 중 암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소음 감소 헤드셋, 스트레스볼, 감정카드가 들어 있는 도움가방을 대여해 드립니다. 대여가 필요한 분은 물품보관소에 말씀해 주세요.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는 총 4석의 휠체어석이 있습니다. 휠체어석 예매는 공연장 고객지원센터 02-3668-0007을 통해 가능합니다. 객석 구조에 대한 안내와 일행과 함께 관람 예정 여부, 트렌스퍼가 필요하신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고자 전화 예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극장 스태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접근성 매니저 또는 고객지원센터 02-3668-0007을 통해 관람 일정을 미리 알려주세요. 모든 회차에 안내보행 스태프가 있습니다. 안내보행은 혜화역 2번 출구부터 가능합니다. 안내보행이 필요한 분은 관람일 하루 전까지 접근성 매니저 070-8064-1462에 신청해 주세요. 접근성 매니저와 소통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관객은 예술극장 고객지원센터 02-3668-0007로 전화예매가 가능합니다. 고객지원센터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③ 시놉시스 / 줄거리

익명의 화상 채팅방 '블라인드 토커'. 개척교회 예술사역에 지친 청년부 사람들이 모인 씨-커뮤니티. 청년부 철폐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사역 활동을 되돌아보지만, 누구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익명 채팅 무료 체험판은 간헐적으로 광고 보기를 제안한다. 이들은 극단의 외부 예술인 참여 모집 광고를 강제 시청 당하고, 예술사역을 대신 해줄 극단을 찾아 나선다.

④ 무대 소개

본 공연은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기존 객석을 사용하지 않으며 개축 객석 비지정석으로 운영합니다. 우리에게 무대는 이야기하는 곳, 발화하는 곳으로 익숙합니다. 하지만 연극 〈생존자

프로젝트는 생존할 수 있을까〉는 공동창작 과정에서 겪었던 일방적인 소통과 불통의 극복을 의미하고자, 청자의 자리를 무대로 옮겼습니다. 객석과 객석이 마주하여, 때로는 이야기하는 자로, 때로는 관찰하는 자로, 때로는 듣는 자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음성소개 녹음

⑤ 인물 소개

절구통개미
연출
본주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공동대표이자 연출이다. 글도 쓴다. 기획과 진행 프로듀서를 총괄하고 홍보물도 만든다. 영상 편집도 한다. 잠과 밥이 부족하다. 공동창작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 못하며 우유부단하다. 수용하는 과정에 애를 쓰지만 결국 스트레스 받아 자기 뜻대로 결정한다.

정글살쾡이
메소드코치
김정호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공동대표이자 메소드 코치다. 돈 버는 제작자다. 연기 수업으로 제작비를 마련하고 연극으로 탕진한다. 짜증과 불만이 많지만, 막상 거절은 못 한다. 센 척하지만, 겁이 많다. 보수적인 발언을 많이 하나 가장 개방적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관심을 귀찮아하지만, 무시당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자존심이 상하면 문다. 주의.

돈키똥키
조연출
김태현

주로 연습 일지를 쓰고 코멘트를 정리한다. 대표님 전화를 받고 무슨 작품인지도 모르고 합류했다. 낯을 가려서 말이 없다는 오해를 받지만 진지하지는 않다. 장난이 많아 매일 혼난다.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에 주의.

라쿤롤
시즌 단원
이민주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시즌 단원 배우다. 컴퓨터를 잘 활용해서 기술을 도맡는다. 먼저 나서지 않는 편이나 속에는 열이 많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얼굴이 쉽게 빨개진다. 타인에게 우호적이지만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극 T형이다.

기복숭이
시즌 단원
현채아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시즌 단원 배우다. 손재주가 좋아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이나 편집을 하기도 한다. 원초적이라 몸부터 직진한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마침표 없이 이야기하다가 길을 잃는다. 에너지 소비가 많아 주로 편의점 간식 쇼핑을 한다. 사람들에게 호의적이나 쉽게 흥분하고, 감정 기복이 들쑥날쑥한다.

개늑대
시즌 단원
김현섭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시즌 단원 배우다. 사람과 무대를 좋아해서 연극을 한다. 춤과 움직임을 좋아하고 무용수와 요가 안내자로 활동하고 있다. 혼자가 편하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억양이 세서 무서울 수 있다. 주의.

⑥ 포스터 소개

가운데 빨간색으로 영문 에프(F)가 쓰여있다. '실패하다'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페일(fail)의 첫 글자를 따왔다. 영문 에프를 중앙에 두고 검은색 글자가 돌아가며 쓰여 있다. 9시 방향에 적힌 공연 제목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크기와 각도가 기울어진 글자들이다. 공연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 접근성 안내, 공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적혀 있다.

⑦ 만든 사람들

작·연출 **본주** | 출연 **김정호 김태현 김현섭 본주 이민주 현채아**

무대디자인 **남경식** | 조명디자인 **탁형선** ARKO

무대감독 **원소미** ARKO | 음향감독 **허선영** ARKO

영상감독 **인터렉션랩 윤민철** | 영상기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록원**

수어통역 **공인수어통번역 잘함** | 수어통역사 **김홍남 이수현 정지은 정지현 조유나**

자막해설 제작 **이청** | 자막해설 운영 **김태령** | 실시간 문자통역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미디어트랙 편집 **윤민철** | 미디어트랙 수어촬영 **황호규**

열린객석 운영 **황수희** ARKO **김태임** ARKO | 접근성 자문 **김슬기** | 과정기록 **본주**

접근성 매니저 **강보름** | 접근성 프로듀서 **이유진** ARKO

접근성 제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동기획 **생존자프로젝트,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접근성 공연 안내 방송 대본

대본 **강보름** | 낭독 **현채아** | 음향 **구자성, 사운드매니아스튜디오**
기획 **이유진, 김태임,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안녕하십니까. 아르코예술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연은 수어통역과 한글 자막해설, 불안장애를 포함한 모든 관객을 위해 열린 객석으로 운영합니다. 본 공연은 조명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암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분들은 자유롭게 퇴장하거나 재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예기치 못한 소음이나 객석 내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입장 시에는 관람자 확인을 위하여 티켓을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연은 시각장애인 관객을 위한 안내견 동반 입장과 위스퍼링 해설이 가능합니다.

관객 출입로는 입장하신 왼쪽 출입구와 오른쪽 출입구를 개방합니다.
비상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하오니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계단을 이용하여 최종 집결지인 마로니에 공원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노인이 계시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최종 집결지인 마로니에 공원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중에는 핸드폰 사용, 사진 촬영 및 녹음을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튼콜은 촬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Welcome to Arko Arts Theater. This performance is open to all audiences and people with anxiety disorders, including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captioning.

It aims to enhance accessibility and lower viewing barriers in a chilled performance setting, ensuring that audiences can enjoy it in comfort. In a chilled performance setting,

this performance minimizes darkness, where the lights are completely dimmed. Noise and movement in the auditorium are permitted with minimal restrictions, and attendees are welcome to re-enter if they need a break from the performance. Please keep your ticket with you when re-entering the theater. This performance is accessible for visually impaired audiences with guide dogs and Whispering interpretation.

The audience entrance will be open to the left and right of where you entered. In case of emergency,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of our ushers, and do not take the elevator. Take stairways to evacuate from the theater to the Emergency Assembly Point,

Marronnier Park. Any children,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with mobility difficulties, please ask for additional assistance for evacuation.

Inside the hall, taking photographs and video recording of any performance without permission is prohibited. But it is possible to take photos and video of curtain call. Thank you.

위스퍼링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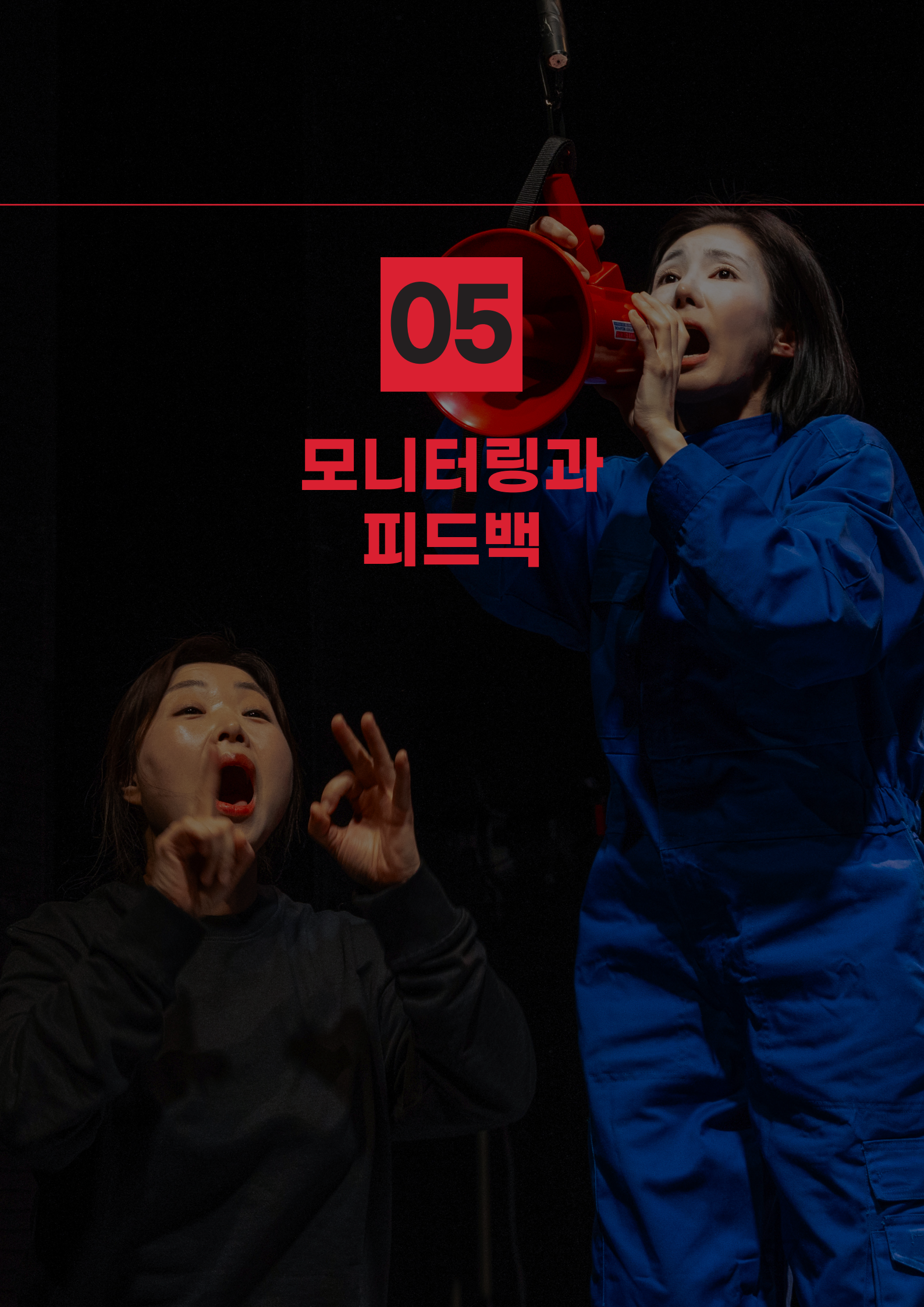
접근성 매니저 **강보름**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전 음성소개, 안내보행, 위스퍼링 해설 등을 준비하여 시각장애인 관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접근성 매니저가 시각장애인 관객의 옆자리에 앉아 위스퍼링 통역을 제공했는데, 영상 소스가 소리 정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영상소스의 내용을 미리 외워 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위스퍼링 해설의 장점은 시각장애인 관객에게 음성해설의 정보량을 자세하게 혹은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전달할 것인지 직접 소통하며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시각장애인 관객이 공연 중 옆자리에 앉은 본인에게 궁금한 점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지점은 영상 소스 중 배우들 여러 명이 공동체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발화

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영상의 소제목이나 질문은 해설하였지만, 이것이 영상소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받고 나서, 재공연 시 이 점을 보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글_강보름

강보름 접근성 매니저



05

모니터링과 피드백

공연 전후로 접근성 관련하여 모니터링 리허설, 관객 피드백, 자체 품평회, 접근성 과정 공유 시간을 가졌다. 관객과 창작진, 제작진 모두가 본 공연 접근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방향을 위해 가장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이 중, 모니터링 리허설은 여러 감각을 가진 관객이 참여하며 접근성의 효용성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극장 셋업을 마친 후, 공연 전 최종 리허설에서 본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창작 과정에서 초 중반 단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피드백 반영이 더 용이했을 테지만, 접근성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느꼈다. 접근성 제작을 초기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고 중간 과정과 최종 단계, 총 두 번에 걸쳐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2024. 4. 25 접근성 모니터링 리허설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5명의 관객 모니터단과 접근성 제작진이 참관한 리허설을 진행했다. 공연과 동일한 조건으로 도움가방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볼, 소음 감소 헤드셋을 직접 사용해 보았다.

접근성 모니터링 리허설

피드백

- ✔ 수어통역이 이해되지 않은 장면은 없었다.
- ✔ 수어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수어 통역사가 배우를 따라다니면서 착석하는 경우, 몸이 틀어져서 한 쪽 팔 수어가 보이지 않기도 했다.
- ✔ 어떤 역할이 말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었고, 자막과 수어가 연결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배우 또는 수어 통역사가 손을 들고 말한다거나, 조명이 먼저 켜진다거나, 조도에 변화를 준다거나 하면 어떨까?
- ✔ 발화자가 익명 화상 채팅방 아이디와 실존 인물 이름으로 나누어지는데 누가 얘기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막에 배역 이름을 더 확실하게 표기했으면 좋겠다.
- ✔ 자막과 수어통역, 배우가 한 시야에 들어와서 좋았다
- ✔ 고성을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트리거 워닝이 더 상세히 안내되면 좋겠다.
- ✔ 런타임도 공연장 밖 [7] POP로 안내되면 좋겠다.
- ✔ 청년부가 사용하는 언어 중 생경한 단어가 많아 이해가 어려웠다.
  사전에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좋겠다.
- ✔ 사전 음성 소개를 듣고 보았음에도 인물이 바로 매칭되지 않았다.
  배우들에 대해 설명이 더 잘 되면 좋겠다.
- ✔ 준비된 헤드셋은 소음 감소 헤드셋이라 소음 차단을 원한다면 개인이 소장한 노이즈 캔슬링 용품을 써도 좋을 것 같다.
- ✔ 배우와 수어 통역사가 어디 앉아 있는지 정보 값이 많다 보니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 ✔ 다양한 장애에 관련된 사전 에티켓이 공연장 밖에 부착되면 어떨까?
  바람이나 촉각, 빛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

7) **POP(Point Of Purchase)** 매장을 찾아오는 고객에게 현장에서 호소하는 광고 형식을 말한다. 소매점의 옥외 사인, 포스터, 패널, 매장 안에 걸어 놓은 포스터, 디스플레이, 상품 설명 안내판, 쇼카드, 가격표 등이 이에 속한다.

- 붉은 조명이 깜빡깜빡하는 장면이 자극적이었다.
- 전반적으로 대사량이 많고 장면에 따라 상당히 시각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청각적이기도 하다. 손실되는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다.
- 런타임이 다소 길게 느껴졌음에도 스트레스볼 덕분에 끝까지 관람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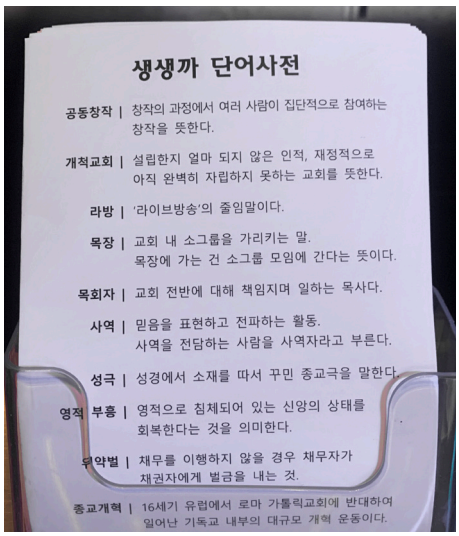
접근성 모니터링 리허설

피드백 공유 후 수정 사항

- 익명 화상 채팅방 입장 후 인물들이 화면(정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발화자가 손을 들고 말하는 설정을 추가했다.
- 익명 화상 채팅방 입장 시, 익명의 아이디와 함께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픽토그램을 추가했다.
- '배우가 큰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트리거 워닝 문구를 공연장 밖 POP에도 추가해서 한 번 더 사전 안내가 가능하게 했다.
- 손실되는 정보에 대해 위스퍼링 해설을 더하기로 했다.
- 교회나 예술인과 관련하여 생소한 단어를 모아 〈생.생.까〉 단어 사전을 만들어 공유했다.

〈생.생.까〉 접근성 안내 POP

〈생.생.까〉 관람 안내 POP



〈생.생.까〉 단어사전

모니터링 리허설 이후, 접근성 매니저와 관객 피드백을 나누고, 전달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위주로 피드백을 반영하고 수정을 더했다. 특히 자극점에 관한 피드백은 많은 고민이 되었다. 개인의 감각이 각기 다르기에 모두의 견해를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느껴졌다. 고민 끝에 다수 관객이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사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로 방향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피드백이 반영된 사항은 극히 일부분이었는데, 모니터링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단계에서 진행되었다면 폭넓게 반영될 수 있지 않았을지 아쉬움이 크다. 더구나 공연이 모두 마무리되고서야, 피드백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시간이 현장 타임테이블에 전혀 계산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다음에 모니터링 리허설을 진행한다면 보완 일정에 대해서도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접근성 매니저 노트

접근성 공연은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제작진의 이해와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관객과의 대화 때 장애에 대한 용어 사용에 있어 실수가 발생하였는데, 접근성 매니저로서 공연팀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했다. 접근성 리허설 후 피드백 시 수어 통역사와 농인 관객, 시각장애인 관객, 정신장애 당사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니터링단 분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 관극 경험이 확장되는 시간이었다는 피드백을 주셨다. 여건이 된다면 접근성 공연 제작 시 앞으로도 다양한 몸을 가진 관객들끼리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_강보름

2024. 4. 26 ~ 4. 30 관객 설문조사

구글폼 링크

연극 <생.생.까> 공연 시작일부터 당월 30일까지 관객 피드백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총 40명의 관객이 참여해 주셨고,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후기와 접근성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다. 접근성에 관한 설문은 총 다섯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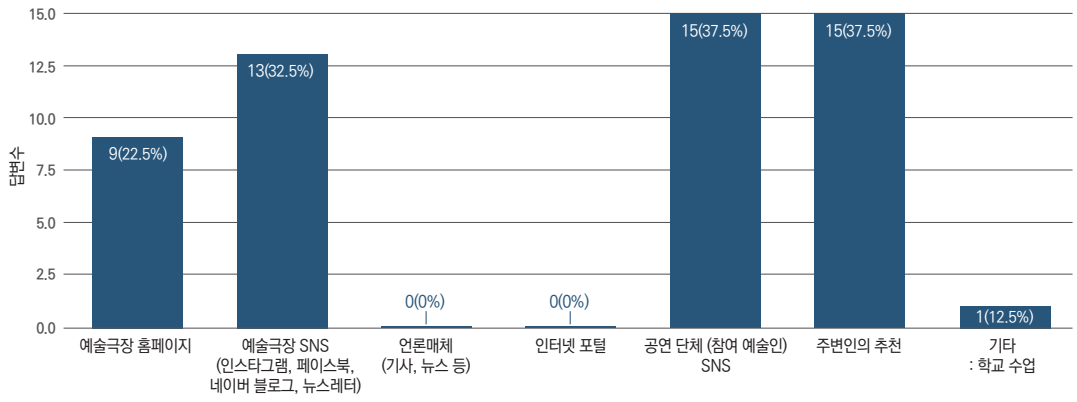
2024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접근성 공연제작

연극 <공동창작 실패 다큐멘터리 : 생존자프로젝트는 생존할 수 있을까> 관람객 피드백

Q1. <생.생.까> 공연을 알게 된 경로는 무엇인가요?

※ 최대 2개의 답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수: 40 (응답: 40, 무응답: 0)



접근성 모니터링 리허설

① 〈생.생.까〉 공연을 관람하기 전, 접근성 공연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 이번 작품은 수어통역, 자막해설, 열린 객석, 도움가방, 음성소개, 안내보행, 위스퍼링 해설, 안내견 동반 입장이 함께합니다.
② 수어통역, 자막해설, 열린 객석으로 관람하신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③ 수어통역, 자막해설, 열린 객석으로 공연을 관람하신 의견을 들려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④ 〈생.생.까〉 공연을 관람하기 전, 접근성(배리어프리) 공연을 관람한 경험이 있나요?
⑤ 예술극장에서 다른 접근성 공연을 관람할 의향이 있나요?

대체로 수어 통역사와의 협업과 열린 객석에 대해 긍정적인 평을 주셨고, 작품 주제의 연장선으로 본 공연 접근성을 읽어주셨다.

피드백

* 주요 의견을 모아 수록했습니다.

- 생존이라는 주제로 접근성 공연을 진행하고 기획한 극단과 아르코에 박수를 보냄. 모두에게 필요한 공연이었습니다.
- 비장애인이 디폴트인 사회에서 비장애인으로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음.
- 한글 자막 너무 좋았음. 발화자가 어느 역할 중인지 헷갈릴 때 자막으로 아는 순간도 많아서 수어 통역자도 동떨어지지 않고 극에 개입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게 좋았음.
- 소통의 중요성이 각인되는 그런 시간. 그런 배려와 소통의 취지가 좋았다고 생각함.
- 모든 요소가 극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좋았고, 수어통역과 한글 자막이 작품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흥미로웠음.
- 취지는 좋으나 일반 관객으로서는 집중하기 어려웠음.
- 비장애인으로서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새로 경험하는 느낌. 그냥 수어통역 장치가 아닌 수어통역 출연진으로 느껴져 공연의 감초.
- 작품과 잘 어우러진 것 같아서 자막, 영상, 수어통역 모두 좋았음. 열린 객석은 일단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좋았음. 다만 객석이 좀 빽빽하게 설치되어서 여유가 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음.
- 배우들과 수어 통역사의 배치가 대본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배우들 사이의 간격이 멀다 보니 수어를 보기가 어려웠음.
- 자막과 수어를 동시에 진행하니 작품 자체에 몰입도가 떨어졌음. 취지를 지지하지만,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최고의 방식인지는 의문.

2024. 5. 9 창작진 자체 품평회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연습실

참여자 **본주, 김정호, 김태현, 김현섭, 이민주, 현채아**

공연 이후 창작진 자체 품평회를 진행했다. 극단 내 품평회는 보통 재공연 계획이 있을 때 작품 개발을 위해 진행하곤 했다. 하지만 연극 <생.생.까>는 창작진의 경험을 다큐멘터리로 풀어낸 이야기이기에 스스로 이번 공연을 준비하며 느낀 점과 접근성 공연을 통해 관객을 만난 각자의 경험을 나누었다.

창작진 인터뷰

* 품평 중, 접근성에 관한 의견을 모아 수록했습니다.

본주 긴 여정이 끝났다. 우리 모두의 경험을 녹인 이야기로 관객을 만나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객석 구조에 영향을 받기도 한 것 같은데, 관객과 같은 단차에서 마주 보고 이야기하니 그간 공연에서 느꼈던 에너지와 다르게 느껴졌다. 관객에게 무언가 보여주어야 하는 틀에서 잠시 벗어나 정말 말을 거는 느낌이더라.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고 접근성을 고민했는지 관객을 만나고 더 명확히 느꼈다. 특히 접근성 양식은 출연진에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텐데 다들 어땠나?

현채아 접근성 공연은 배우로서 상당히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초반엔 자막과 수어통역이 연기에 제약을 주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좋은 긴장감을 형성해 주었다. 배우들 모두 대사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생각난다. 장벽을 없앤다는 의미로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비장애인 관객에게도 새로운 감각을 주는 공연이 만들어진 거 같아 앞으로 더 다양한 접근성 공연이 제작되면 좋겠다.

김현섭 열린 객석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접근성 공연 시도가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각과 인식을 제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볼 수 있게 했던 것 같다. 특히 수어통역이 무대에서 단지 통역에 머물지 않고 극 중 하나의 요소로 배우들과 함께 호흡했던 시도는 접근성 공연을 낯설지 않고 즐길 수 있게 했기에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접근성 공연이 많아지고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민주 자막과 다르지 않은 대사를 뱉어야 하는 압박이 있었다. 자막 스크린을 가리지 않아야 하기에 최대한 앉아서 연기를 하거나 수어 전달을 위해 특정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을 실감하는 경험이었다. 더욱 다양한 관객분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다양한 관객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언제든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새로운 긴장감이 생겼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공연이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양한 관객을 수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접근성' 타이틀이 붙지 않아도, 극장 방문이 어려웠던 관객도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다.

김태현 접근성에 대해 무지했다. 청각장애 관객을 위한 자막과 휠체어석이 접근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체계적이어서 놀랐다. 극장에서는 다양한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나에게는 정말 단순히 연기자에 그치지 않고 연극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다양한 관객층에 대해 생각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호 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본주 연출에게 큰 숙제였던 것 같다. 처음에 접근성

관련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작품에 배우로 참여하게 되면서 연출이 왜 욕심을 부리고 싶었는지 조금은 이해됐다. 우리 작품에 중요 키워드가 '실패'와 '공동창작'이지만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람과 소통이 중요하단 걸 알 수 있다. 극 중 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자유롭게 하라는 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를 위한 문화생활이라고 하지만 결국 선택할 수 없는 이들에겐 폭력이 될 수 있다. 결과가 완벽할 수 없더라도 경험하고 보완하고 다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생존자프로젝트의 숙제인 것처럼, 연출은 완벽할 순 없어도 '어떠한 장벽도 관객과의 소통을 제한할 수 없다'는 시도를 원했고, 이것이 극의 주제와 동일시되길 바랐던 것 같다. 물리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러한 접근과 과정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값지게 느껴졌다.

그리고 비장애인 관객들의 몇몇 피드백에서 '역차별'이란 단어를 듣게 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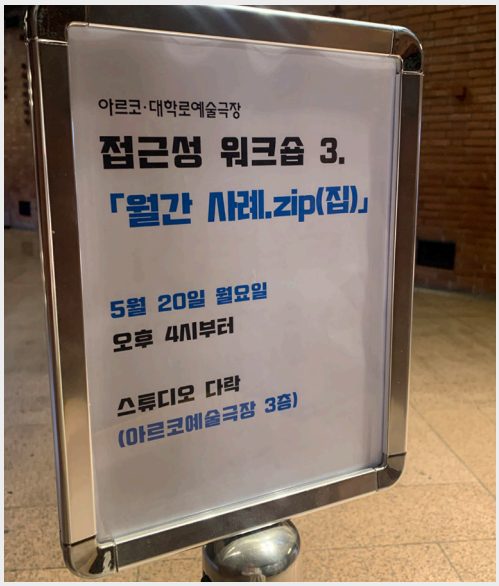
접근성 관련해 실질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비장애 관객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제작 규모가 크고 접근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방법의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가 될 확률이 높고 이럴 경우, 실질적인 배리어 프리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관람객의 이해를 위한 충분한 사전 공지와 현장 공지, 그리고 진행 방식이 시도되어야 할 것 같다.

2024. 5. 20 예술극장 접근성 워크숍 「월간사례. zip(집)」

1호 : '열린 객석'의 접근성

아르코예술극장 스튜디오 다락



워크숍 장소 안내 POP

고정패널

양근애 평론가, 신재 연출/0set프로젝트, 김민솔 독립기획자

워크숍 운영

김태임 극장운영팀 대리, 고은미 수어 통역사, 장정수 문자 통역사

참여 패널

<공동창작 실패 다큐멘터리 : 생존자프로젝트는 생존할 수 있을까>

관객 해랑, 생존자프로젝트 본주 연출, 김정호 공동대표
예술극장 이유진 접근성 프로듀서, 황수희 하우스매니저

<오차의 범위들 : 정류장들>

관객 김효정, 런더앤싸이트닝 정혜린 연출,
오로민경 음향/화자, 성다인 접근성 매니저

공연 후, 접근성 경험이 쌓인 창작자의 제작 과정과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현장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접근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극 <생.생.까>, <오차의 범위: 정류장들> 창작진, 각 공연의 관객이 참여해 감상과 아쉬운 점을 나누었다. 다음 창작을 위한 개선점 위주로 노트했는데, 지속해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사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래는 워크숍 현장에서 연극 <생.생.까>에 대해 나눈 다양한 의견이다.

- 열린 객석과 도움가방 취지에 대해 사전 설명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도움가방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본 공연에 트리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이 형성되었다.
- 열린 객석 운영이 지각이나 화장실 사용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었다.
-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공연 방해 사례가 더 많아질 것도 우려되었다.
- 개축 객석 구조에 아쉬움이 많다. 자유롭게 입·퇴장할 수 있었나? 다시 한번 질문을 챙겨가야 한다.
- 보통 재공연에서 접근성을 제작하는 경우를 더 많이 경험했다. 초연작에 접근성 고민이 더해진 점이 좋았다.
- 시스템만으로는 접근성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극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식 안에서 창작진이 '예외'의 상황에 충분히 열려있는지 접근성에 대한 태도를 검토해 봐야 한다.
- 수어통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프로덕션 초반에 이루어진다면 좋겠다. 아직 청인 수어 통역사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농인 관계자를 통해 감수를 받는다면 어떨까?
- 접근성 안내방송이 오히려 장애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상황이라고 느껴져 편치 않았다. 적정한 비중의 안내 멘트가 구축되면 좋겠다.

- 예산이나 구조적 제약으로 접근성 회차가 일부 회차로 진행되기도 한다. 자연스레 접근성 포함/미포함에 대한 선택의 폭이 생기기도 하지만, 접근성 공연이 비장애인 관객에게도 다감각적으로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 일부 회차 진행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모든 공연 회차에 접근성이 포함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좋겠다.
- 앞으로 지속적인 시도와 익숙함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접근성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이 어디까지 양식으로 제시할지, 어디까지 창작자의 영역으로 열어둘지 경계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극장 운영진과 평론가, 기획자, 창작진과 관객, 다양한 위치에서 접근성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고, 서로 다른 위치만큼이나 접근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다. 더불어 관객의 피드백만이 결정적인 제시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극장은 이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의 소통 매개체로 기능해야 하기에 나름의 양식을 구축하는 데 있어 고민의 영역이 훨씬 더 광범위했다. 앞으로 창작진으로서 해야 할 일은 다감각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유연한 연극 문법을 찾는 일이 아닐까?

접근성 워크숍 iii 기록

'열린 객석'의 접근성 <월간 사례.ZIP(집)>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7986941&memberNo=18719577

기록을 마치며 '함께하는 방법'

3개월의 짧은 제작 기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공동기획한 접근성 제작은 연극 <생.생.까>를 공연화 하는 데 있어 여러 질문을 던져주었다. 창작진이 어떤 관객을 만나기를 기대하는지, 어떤 말을 건넬 것인지, 말 걸기 방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말이다. 접근성 제작은 이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이 되었다. 그간 창작활동을 하면서 이토록 관객의 정체성이 뚜렷했던 적도 없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연극을 왜 하는지 실질적인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었다. 연극 <생.생.까> 창작진은 공동창작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했고,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며 '함께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그 방법의 하나로 '듣는' 청자의 태도를 선택했던 작품 이야기가 접근성을 만나 다양한 언어 방식에 다가가는 연습을 했고, 이로써 완성되었다고 느낀다. 접근성 제작이 예산과 인력에 따라 시도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술극장의 지원과 응원이 없었다면 연극 <생.생.까>도 전 회차 접근성 공연을 실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창작자의 시도를 지지해 주고, 아직 친숙하지 않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력을 더해준 예술극장 운영진과 스태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예술극장 응원에 받았던 감동을 다음 창작활동에서 더 나은 '말 걸기'로 나누고 싶다.

만든 사람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접근성 제작공연

<공동창작 실패 다큐멘터리 : 생존자프로젝트는 생존할 수 있을까>

2024년 4월 26일(금) ~ 4월 28일(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작·연출	본주
출연	김정호 김태현 김현섭 본주 이민주 현채아
조연출	김태현
무대디자인	남경식
조명디자인	탁형선 ARKO
무대감독	원소미 ARKO
음향감독	허선영 ARKO
영상감독	인터렉션랩 윤민철
영상기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록원
영상전시	현채아
홍보디자인	김재연
홍보영상	안진희
공동기획	생존자프로젝트,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외부 예술인 인터뷰이

권미나 강유진 강인욱 김류현 김재연 민소연 박소정 박한솔
서성영 신민선 심형보 안다슬 이다솜 이승헌 이재홍 이준규
이한기 장희진 최은희 한이원 한지인

만든 사람들

접근성 공연제작

수어통역	공인수어통번역 잘함 김홍남 이수현 정지은 정지현 조유나
자막해설 제작	이 청
자막해설 운영	김태령
자막해설 장비	인터렉션랩
실시간 문자통역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미디어트랙 편집	윤민철
수어영상 촬영	황호규
열린 객석 운영	황수희 ARKO 김태임 ARKO
접근성 자문	김슬기
접근성 모니터링	문지연 박재철 이성수 임대륜 조훈성
접근성 매니저	강보름
접근성 프로듀서	이유진
기획·제작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만든 사람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사무처장	송시경
예술극장장	강량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극장운영팀]

팀장	홍승욱
대관	김선욱 임나래 최예솔
기획	이유진 오선명 황금실 김태임 변혜은 노혜인
공연예술창작산실	박성은 임재연 박현정 심정훈 두송희
홍보	이재일
고객지원센터	신지혜
하우스	변고은 이경민 황수희 박유진 김태연
티켓	이주담 김지수A 이은혜 김지수B
시설	이기복 박성국 박동진 윤지환 유호성 진호택

[무대예술팀]

팀장	진용남
무대	유창대 이동선 신동환 박민호 김인성 서지훈 김혜지 이동현 원소미 이미현
조명	이주환 곽현주 탁형선 김병구 이명한 박선임 박헌수
음향	도명호 김경남 허선영 김종현 남영모 정하윤
무대기술119 지원센터	신의정 김도형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접근성 제작공연

공동창작 실패 다큐멘터리 : 생존자프로젝트는 생존할 수 있을까
접근성 제작 과정 기록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발행인	강량원
발행일	2024년 9월
기록작가	본주
기록사진	황호규
디자인	디자인마루

본 기록집에 수록된 도판 및 저작권은 해당 저자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